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원은 1996년 설립 이래,
품격 있는 지역 문화 발전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찾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북학 연구와 도서 발간,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
수준 높은 전통문화강좌의 개설,
그리고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과 성북구 작품전 등
창조적인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북문화원은
지역 내 활발한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문화의 향상과 저변 확대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의 지원으로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며 보존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마을기록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성북구 주민기록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성북구민뿐 아니라 성북구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학생 등 성북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성북구 주민기록단이 되어 활동합니다. 올해는 기존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이어온 단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주민기록단이 활동했습니다. 스무 명의 주민기록단은 성북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며 마을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



기획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필

성북구 주민기록단

김지성·남명희·노재훈·박경석·선종욱
신수미·신수민·신해영·양혜선·오두석
유지예·윤서영·윤소영·이가현·이동미
장보혜·정봉운·정유란·조은영·채혜정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

일러두기

1.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은 2024년 한 해 주민기록단이 활동하며 제출한 보고서 중 1인 1개만을 선정하여 엮었습니다.
2. 수록된 것 이외의 보고서는 '활동목록'이라는 이름으로 기재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의 주민기록단 활동기록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든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양도받았습니다.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성북

애정 어린 기록의 보고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의 지원으로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며 보존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마을기록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성북구 주민기록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성북구민뿐 아니라 성북구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학생 등 성북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성북구 주민기록단이 되어 활동합니다. 올해는 기존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이어온 단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주민기록단이 활동했습니다. 스무 명의 주민기록단은 성북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며 마을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매년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성북에 거주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열 번째 구술생애사에 더불어, 한 해의 보고를 담은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를 함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취재의 주제는 기록하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 그 폭이 무척 다양합니다. 오랜 문화적 유산에서부터 성북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축제, 골목에 남아있거나 사라져가는 성북의 풍경,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공동체와 일상, 다채로운 주제를 담아낸 보고서는 우리 곁에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성북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보고서 선집은 성북구 주민기록단의 노력과 열정이 응축된 결과물로, 선집을 통

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활동보고서에는 성북을 향한 주민기록단의 애정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와 새롭게 발굴된 기록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선집을 읽으며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발견을 함께 나누고, 성북의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북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숨은 이야기를 발굴해 주신 성북구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와 구술사 연구에 귀한 지식을 나누어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지원해주시는 성북구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이끌어 준 성북문화원 연구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구 주민기록단과 함께 성북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 주민기록단과 함께 써갈 성북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성북문화원장 **김영일**



05 _ 발간사

8 _ 성북근현대문학관을 통해 본 성북의 문학 정유란

12 _ 우리옛돌박물관 윤소영

16 _ 성북동 나무들 장보혜

20 _ 369사랑방과 어머니들 조은영

30 _ 국제꽃장식대회 신수민

34 _ 보문동주민자치회 박경석

40 _ 알록달록 바느질하는 이주여성들 남명희

52 _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꾸며진 산책로, 성북천 윤서영

56 _ 길음 5 재정비 촉진 구역 정릉로31길 한옥군 신해영

62 _ 성북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선종욱

66 _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성북구 내 천주교의 인권 활동 노재훈



- 70 _ 북악스카이웨이 흔적을 찾아서 오두석
- 76 _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열린 아파트 김지성
- 80 _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주택가’ (신월곡 1구역) 양혜선
- 86 _ 성북천변 주상복합 건물과 가게들 이가현
- 90 _ 반평생 41년 봉사자의 삶의 여정, “봉사자 이희자 님” 인터뷰 유지예
- 96 _ 우리 동네 부지런한 봉사자 이순진 여사님 인터뷰 이동미
- 100 _ 성북문화원 앞 및 오패산로1가길 벽화 채혜정
- 106 _ 장위동 주변 주택가 정봉운
- 114 _ 2024 제8회 성북문화바캉스 신수미
- 118 _ 기록의 순간들
- 124 _ 소감과 제언

정유란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성북근현대문학관을 통해 본 성북의 문학〉에서 올해 새롭게 개관한 성북근현대문학관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특별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고 소개함과 동시에 성북근현대문학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성북의 지역, 문화적 특색의 맥락에서 성북근현대문학관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활동목록

〈성북근현대문학관을 통해 본 성북의 문학〉



성북문학 찾기 프로그램 참여형 프로그램 참여 사진

성북근현대문학관을 통해 본 성북의 문학

일시: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14:40-16:15

장소: 성북근현대문학관 (성북로21길 24)



성북근현대문학관은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곳으로, 올해 3월 19일에 개관한 장소다. 성북근현대문학관은 지하 1층 자료열람실, 1층 기획전시실, 2층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성북근현대문학관 중 보고자는 1층 기획전시실과 2층 상설전시실을 방문했다. 성북구 내에 최근에 개관한 장소이자, 성북구에서 활동한 문인이나 성북을 배경으로 한 문학에 대해 알아

SEONGBUK-GU : THE CITY OF CULTURE AND ART

문화예술의 도시, 성북

수려한 자연과 풍부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북은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의 거주 공간이자 활동 무대였던 성북은 그들의 글과 그림, 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에서는 본 상설 전시를 통해 '문인촌, 성북'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간이 작가에 영감을 주고 작가가 공간을 의미화하여 담아낸 '문학 속 성북'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북에서 거주하며 활동한 문인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소통 장인이었던 성북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술인들의 활발한 협업으로 만들어진 문예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성북'의 다채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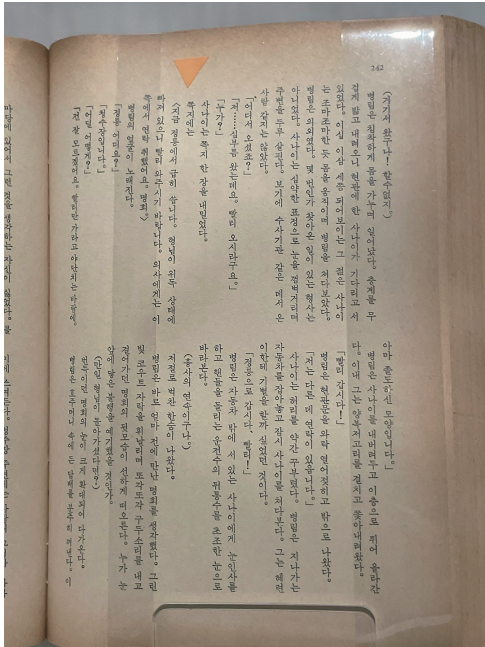
전시를 통해 성북문학과 성북문인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의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들이 던져지는 오늘날, 성북의 생동하는 문학이 주는 긴 여운을 음미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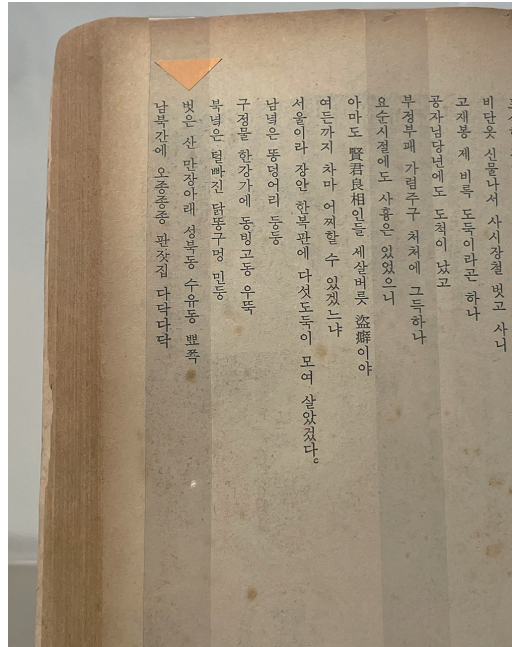
Seongbuk-gu, with its beautiful nature and rich culture, is an integral part of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ry history. It was a residential and active space for prominent cultural artist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ir writings, paintings, and music. At the Seongbuk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Museum, you can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of this "literary village" and observe "Seongbuk-gu in Literature": how the space inspired writers and how they, in turn, gave meaning to the space through their works. Next, see writers who resided and were active in Seongbuk-gu and explore Seongbuk as a hub for diverse cultural artists. Witness the varied facets of the "Literary Village Seongbuk-gu" through literary magazines and archival materials produced by the active collaboration of writers and cultural artists in Seongbuk-gu.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discover new aspects of Seongbuk's literature and its literary figures. In this day and age when skeptical questions are thrown at the value of literature, we hope that this will be a meaningful time to think about the meaning that the literature of Seongbuk-gu has left in us along with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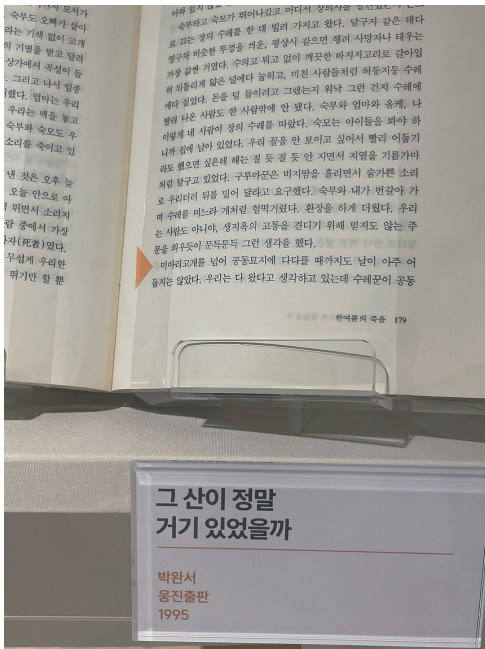
문화 예술의 도시, 성북 상설 전시 초입에 있는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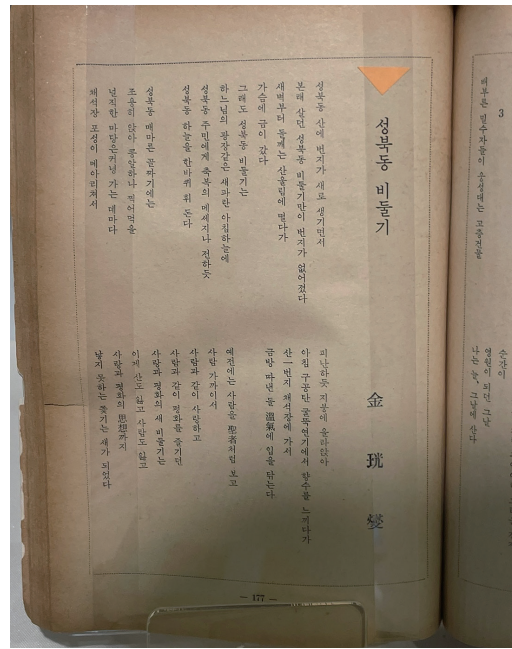
박경리 <내 마음은 호수> 정릉 언급 부분



<오적> 성북동, 수유동 언급 부분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미아리고개 언급 부분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언급 부분

보고자 해당 장소를 조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육사, 한용운, 조지훈, 박완서 등 저명한 근현대 문인들이 기거하거나 이들의 문학 속에 '성북'이 등장한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적인 성북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보존하며, 알릴 수 있는 성북근현대문학관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일인 2024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성북근현대문학관의 상설전시실에서는 당시 성북의 사진과 시가지계획평면도, 전차 노선도, 성북천 주변 지역의 도시변화지도 등 문인촌이었던 당대의 지리적/사회적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문학 속 성북'을 주제로, 성북을 배경으로 한 여러 문학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성북 문인 아카이브 및 문학 지도'라는 부분이었다. 설치된 키오스크와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성북 문인에 대한 정보와 문학적 공간이었던 성북의 지도를 볼 수 있다. 또한 '성북문학 찾기'를 통해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문학을 추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문인 스탬프존, 필사 공간 등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1층의 기획전시실에는 한용운의 특별 전시인 '그린 것은 다 님이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북근현대문학관을 통해 성북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특색을 보존하며 알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과거 성북이 문인들의 근거지임과 동시에 문학적 배경으로 등장하며 소통의 장이었던 만큼, 성북근현대문학관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북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 동시에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새롭게 개관했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유일한 단점 같다.

윤소영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우리옛돌박물관〉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의 명소를 주로 방문하여 기록했다. 조사대상을 깊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잘 정리해 기록으로 남겼다. 장소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파헤쳐 상세히 기록했다.

활동목록

〈선잠단지의 역사와 유래〉, 〈시인 조지훈의 집터를 찾아서〉, 〈성북의 전통 정원: 성락원(城樂園)〉, 〈우리옛돌박물관〉, 〈정법사〉,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구립미술관과 화가 조덕환의 삶〉, 〈성북 우정의 공원〉, 〈만해공원과 기념공간 네트워크〉



선잠단지의 역사와 유래



정법사

우리옛돌박물관

일시: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10:00-12:00

장소: 우리옛돌박물관 (대사관로13길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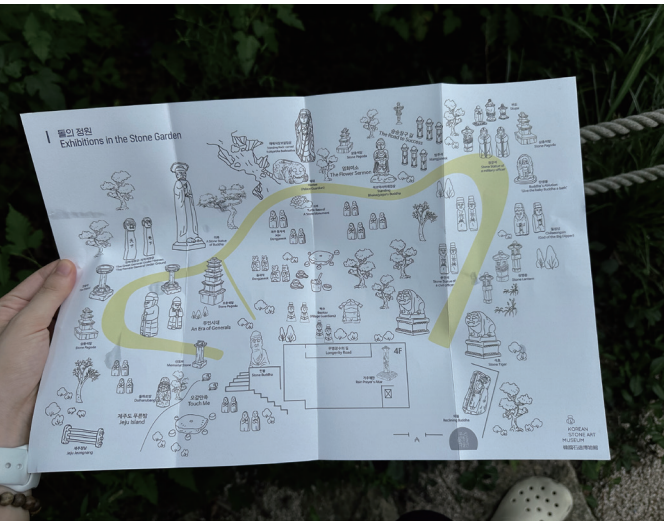


조사지 선정 이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유로운 문화재 관람이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옛돌박물관에서 한 돌조각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진을 본 기억이 있다. 이 무렵 우리옛돌박물관은 일본에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여 기념 전시를 진행 중이었다. 2019년에 일본에서 환수한 유물은 조선 중기 장군석과 장명등 그리고 비석 받침이다. 이 유물은 오자와 테리유키 씨가 기증한 것으로 1972년 그의 외할아버지인 요시이에 게이조 씨가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장군석'이란 조선시대 묘 앞에 무관의 모습을 한 장군석이 묘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활용되었고, '장명등'은 묘역 근처를 환히 밝혀 고인이 어두운 저승길에서 극락왕생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조명등이었다. 환수 기념식 당시 우리옛돌박물관의 이사장은 박물관의 목표 중 하나가 해외에 흩어진 석조 유물을 환수해 오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박물관에 방문하여 석물을 직접 보았던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어 이번에 성북구를 대표하는 박물관 중 하나로서 이 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옛돌박물관 입구 성북02를 타고 가면 입구 바로 앞에 내릴 수 있다.



우리옛돌박물관 돌의 정원 지도



우리옛돌박물관 입구

승장구길은 등용문 전설을 통해 ‘합격’의 기운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등용문 전설이란, 중국 황하강의 ‘용문’이라는 협곡에는 잉어들이 센 물살을 거슬러 뛰어올라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즉, 등용문은 입신출세를 위한 관문을 뜻하여 오늘날 승진, 출세, 합격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전통적인 형태의 화장실, 장승, 제주도의 돌 풍습 등을 전시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석조 유물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현장 조사 내용

우리옛돌박물관은 20년이 넘게 국내에 흩어져 있던 한국의 석조 유물을 모아 건립한 석조전문박물관이다. 우리옛돌박물관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따르면, 박물관은 2000년 경기도 용인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석조 유물 전문박물관인 세종옛돌박물관에서 출발하여 2015년에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문인석, 장군석, 동자석, 벽수, 석탑, 불상 등의 돌조각뿐만 아니라 전통 자수 작품과 각종 근현대 작가의 회화 작품도 동시에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산, 바람, 1,000개의 돌, 1,000개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곳이라고 ‘우리옛돌박물관’을 소개하며 다양한 유물이 가진 이야기의 힘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옛돌박물관은 성북동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 드넓은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무더운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특히 야외 전시는 다양한 돌조각을 전시하고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승승장구길’로 가는 길에는 우거진 숲과 돌조각이 어우러져 자연의 조화가 돋보였다. 승



우리옛돌박물관 전시 일부

조사지 특징

우리옛돌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전통 종이 한지를 이용한 ‘소원초롱’ 만들기, 아트램프 만들기, 소원보를 만들기 등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옛돌박물관은 ‘해설이 있는 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 야외 박물관 정원을 산책하며 석조 유물이 담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과 수집의 역사를 듣는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조용히 사색하듯이 스스로 전시를 즐기는 것도 좋으나, 전문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을 통하여 유물이 가진 이야기들과 문화적 가치를 공부하는 것도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다. 프로그램 소개란에 따르면 ‘박물관 산책’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약 50분 간 진행되며, 성인 3천 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 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박물관 전문 도슨트 선생님의 해설을 통해 한국석조유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보다 풍부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조 유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옛돌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물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석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혜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우리 주위에 풍경처럼 심겨있는 나무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과거의 항공사진,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지역 안의 새로 심어진 나무, 수종을 조사하여 <성북동 나무들>에 기록으로 남겼다.

활동목록

<성북동 나무들>, <성북구청 은행(암)나무 교체사업 대상지 조사>, <한천로 은행나무 가로수길>



성북동 나무들

성북동 나무들

일시: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17:00-18:00

장소: 성북동1가 50-22부터 성북동 33-54



조사지 선정 이유

2년 전 여름 태풍에 거주지 마을 어귀의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졌다. 이 사고 직후 마을의 오래된 큰 나무 20여 그루가 밀동이 잘렸다. 수령 70~80년 이상 된 나무들이고 마을의 풍경을 이루며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자리한 나무들인데 아쉬움이 컸다. 남겨진 빈자리에는 새로운 어린나무가 심기기도 한다. 나무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사고를 겪기도 한다. 건물과 길이 바뀌면서 마을의 나무들도 변화를 겪게 된다. 늘 한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나무들도 천천히 때로는 갑자기 변한다. 지금 남아있는 것과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기 위해 올 한 해 주민기록단 활동기간 동안 성북동 거리에서 만나는 나무들을 기록해 나가고자 한다. 사진은 보행자의 관점에서 촬영할 것이다. 과거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 주민 인터뷰를 병행하고 옛날 항공사진과 지도 등의 자료를 찾아 보완할 것이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기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성북동 중에서도 주요 가로변을 구간을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주요 가로변의 가로수를 우선 기록하고, 주민이 가꾸는 거리 정원이나 화단의 꽃과 나무, 사라진 나무의 흔적들, 잘못 관리되고 있는 나무들 등의 주제별로 기록할 것이다.

첫 번째 조사 구역은 성북동 입구 서측 인도이다.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부터 성북로 73 앞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 특징

이번 조사 구역인 인도와 그 옆의 차도는 성북천 복개 이전부터 마을의 주요 도로로 사용되었다. 그 길을 따라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다. 70~80년 이상 오래된 나무는 이제 거의 베어지고 중앙분리대 쪽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큰 나무들은 다음 세대의 나무들로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룬다. 다음 세대로는 느티나무 몇 그루와 툼리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최근 10년 이내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식재되었다.



나폴레옹제과 앞 느티나무 마을의 가로수 중 비교적 나중에 심어진 나무. 인근에서 유일한 가로수이다. 주변의 나무들은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베이고 없어졌다.



편의점 앞 플라타너스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구행속품 앞 은행나무 오른쪽 도로 너머 중앙분리대에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보인다.



버스정류장 옆 플라타너스 마을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중 비교적 젊고 나무 둘레가 가늘다.



파출소 앞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1호 느티나무



성북교회 입구 툼립나무 성북동 가로수 중 유일한 툼립나무

2024년 7월 조사대상지
(보행로 쪽만 집계) 가로수 현황

플라타너스 8
느티나무 15
은행나무 3
이팝나무 4
툼립나무 1

조은영

2023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369사랑방과 어머니들〉과 〈보문복지사랑채〉와 같이 좋은 영향을 펼치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라틴아메리카 축제〉, 〈사찰음식축제마당〉과 같은 지역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들도 기록으로 남겼다.

활동목록

〈보문복지사랑채〉, 〈권진규 아틀리에〉, 〈369사랑방과 어머니들〉, 〈라틴아메리카 축제〉, 〈사찰음식축제마당〉, 〈경동고등학교 드림천문대〉, 〈경동고 동문을 만나다〉, 〈한옥 속에 작은 책방 '책보냥'〉



명원민속관

369사랑방과 어머니들

일시: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10:00-12:00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11:00-12:00

장소: 369사랑방 (삼선교로2길 36-1, 1층)



조사지 선정 이유

369마을은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한양도성 성곽마을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2010년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013년 주민 동의로 정비 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4년 주거 환경 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재개발 추진 당시 ‘삼선6구역’으로 불려 첫 소리를 따서 3.6.9마을이라 불리게 되었고,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언덕마을이라는 세 가지 뜻으로 ‘삼육丘(삼육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019년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기 서울시 지역 관리형 도시 재생 기업 (CRC)’에 선정되었다. 369마을은 서울시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



369사랑방



영하기 위해 앵커시설 4곳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69사랑방’, ‘369마실’, ‘369예술터’, ‘369예술공방’으로 그중에 한 곳인 369사랑방과 어머니 밥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녀회 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인터뷰: 부녀회 소속자 님, 조점순 님, 원영자 님

369사랑방 소개

369사랑방은 369마을의 초입에 위치한 첫 번째 앵커시설로 ‘마을 지역 자산화를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의 특성으로 생성된 공간이다.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마을 부녀회 분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 밥상과 할머니 밥상은 부녀회 어머니들이 꾸러가는 마을식당으로 매주 1회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시작되었다.

현재는 일반인에게도 오픈하여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할머니 밥상을 통해 마을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어머님들 소개와 사랑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밥상은 이하선 부녀회 회장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 봉사로 ‘국수 한 그릇 드세요’에서 시작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에는 동송동에 있는 혜화교회 식당을 빌려 배식했는데 앵커시설인 369사랑방을 짓고부터는 이곳에서 운영이 되었다. 369사랑방은 서울시가 소유주이며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에는 ‘금요식당’이라 불렀고, 앵커시설인 369사랑방이 생긴 이후로는 수요일마다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수요밥상’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 밥상’과 할머니들을 위한 ‘할머니 밥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부녀회 네 명이 운영했으나 회장님이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시면서 현재 세 명의 부녀회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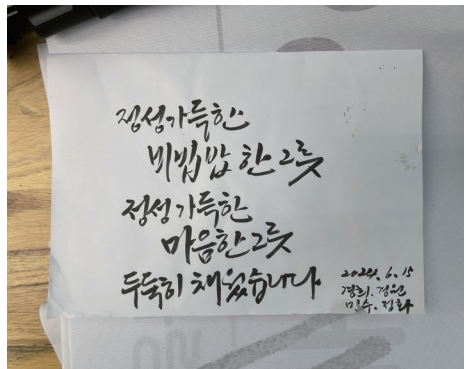
사랑방에서 제일 맏언니인 소속자 님은 369사랑채 바로 밑에 집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시고 근처에 사셔서 필요할 때마다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랑방을 운영하는 데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맏언니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 사용했다고 한다.

조점순 님 “의자가 모자라거나 그릇이 모자라면 형님 집에서 다 가져오고 다 가져다 썼어.”
소속자 님 “어떡해. 급한데 손님은 오시고.”

부녀회에서 둘째 언니인 조점순 님은 활동한 지는 오래되었고, ‘할머니 밥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막내인 원영자 님은 삼선동 1가에 집을 사놓고 돈암시장에서 25년간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일하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삼선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남편분이 통장으로 계셔서 부녀회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며 참여하던 중에 결원이 생기면서 동참해달라는 요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다 들어오게 되니 동네 일이라 해도 낯설고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원영자 님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셋이서 알아서 손발을 맞춰 잘 진행하고 있죠.”



369사랑채 모습

369사랑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처음에 ‘할머니 밥상’은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에서 5시간씩 활동했는데 하다보니 일주일에 세 번씩 하게 되고 지금은 장사를 하며 손님도 받게 되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성 있게 운영하고 싶으나 지역이 외진 곳에 있고, 춥고 더울 때 운영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7월에는 장마철 더위 때문에 한 달간 어머니들의 휴가가 주어졌고, 8월에는 습한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아 할머니 밥상이 있는 목요일 하루만 운영된다. 9월부터 10월까지의 ‘369성곽여가 풍:류’가 진행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번 운영된다.

‘369성곽여가 풍:류’는 369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문화, 예술 체험행사로 369마을 문화 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과 청년, 지역 대학 및 문화 예술 네트워크를 연대하여 9, 10월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성곽마을여행, 정성 가득한 어머니 밥상, 369 풍류 한마당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성곽 예술제로 풍류가 진행되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30~40명 정도 사랑방을 방문한다고 한다. 토요일은 사람이 많아 두 가지 음식을 할 수 없어서 비빔밥만 제공하고 있다.



할머니 밥상에 참여하신 할머니들



어머니 밥상

“30~40명 되는데 누구는 백반 달라, 누구는 비빔밥 달라고 하면 힘들어서 한 가지로 통일, 식혜 끼서 만 원씩.”

369마실에서 식혜는 따로 파는데, 1L는 만 원, 500ml는 오천 원 해서 더울 때는 제법 팔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수제청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일대에서 마을 잔치가 펼쳐지면 369사랑방에서 진행한다.

“작년에는 후원 행사로 동지팔죽도 했었어. 시의원, 구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먹고 가고 전부 동네 잔치지.”

“한 번씩 해요. 동네 잔치같은 거.”

“거창하게 하기보다 간소하게 하는 거지.”

비어있는 시간에는 작가들에게 대관하여 그림그리기, 수공예, 도자기공예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할머니 밥상은 어떤 분이 오시는가?

처음에는 열두 분 정도였고, 현재는 절반에 해당하는 다섯 분 정도만 오신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 몸이 편찮으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돌아가셔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준 다며 안타까워했다.



369마을 청병청병 체험 직접 담근 청굴청 한 병, 샐러드와 떡, 청굴 음료 제공

“그전에는 90 넘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못 오셔. 평지가 아닌 꼭대기다 보니까 비 오면 못 오고, 눈 오면 못 오고, 더워서 못 나오고.”

왜 다른 분들은 오지 않는지 묻자, 이곳은 무료 봉사이고 전부 부르면 많겠지만, 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만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아래 노인정이 있지만 구역이 갈라지다 보니 삼선1구역 할머니들만 오신다고 한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안 오시더라구요. 밥 배식을 한다는 게 먹기가 좀 그런가 봐. 안 와요. 오시라 해도 안 오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초창기 때부터 계속 오시던 분이래.”

이곳에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재미있으신 분이 있다며 어머님들이 추천하셨다. 노랫가락도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놓고, 노래도 부르시고 분위기만(분위기메이커)이라고 했다. 이날도 식사하러 오셨는데 89살 나이에도 아직도 정정하시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시며 대화 내용을 통해 명랑하고 화통하신 성격을 느낄 수 있었다.

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 요즘은 힘들어서 식자재 마트에서 배달로 많이 주문하는데 처음에는 경동시장 가서 사 오고 직접 끌고 다녔다. 그래도 하나씩 빠트리고 사 올 게 생긴다.

우리는 살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다 시키면 좋은데, 좀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사고 싶어서 다 사 들고 온다.

“예전에는 저기가 500원 싸면 그놈을 사서 들고 오는 거야. 한 곳에서 시켜버리면 3만 원 금방 되는데 여기는 이게 싸고, 여기는 이게 싸고 하니 이놈 사고, 이놈 사고 들고 오는 거야. 주부니까.”

운영하시며 겪었던 에피소드는?

369사랑방은 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고, 계단이 많은 꼭대기에 위치하다 보니 무거운 택배 물건을 주문했을 때 미안하다.



청굴청 담그는 모습 청굴청을 담그고 있는 부녀회 원영자님

조점순 님 “택배 주문을 하면 화를 내니까 숨어. 차가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끌고 들고 올라오니깐. 여기 앉아서 들으면 막 씨씨하면 여기 부엌에 숨는다니까 미안해서.”

소숙자 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긴 힘들지.”

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너무 화를 내면 무서워서 숨어서 지켜보다 던져놓은 물건을 챙겨 온다고 한다. 요즘에는 택배차가 왔는지 미리 확인하고 택배기사가 끌고 오면 세 분이서 뛰어 내려가서 한 박스씩 들고 올라온다고 한다.

“최근에 청굴이 30kg씩 오니까 힘들지.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시원하게 청굴차 저거 한 잔 타 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

“좋은 아저씨들은 뭐도 타 드리고.”

운영하시며 어려운 점은?

부녀회를 늘리고 싶은데 손님이 없고, 지금은 집에서 노는 분 없이 다들 직장 다니고 있고 이곳에서 매달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냐 여쭙보니 “연



어머니 밥상을 준비하는 모습

세 많으신 분은 식사를 하셔야 하고.”라고 하셔서 웃음이 터졌다.

“부녀회는 자꾸 늘리라고 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 돈 조금 받고 누가 여길 오려고 하겠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봄, 가을이 아닐 때는 손님이 없어서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대리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홍보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원영자 님 “몸담고 일하는 동안은 운영이 잘돼야지.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남길 바라는 거지. 흐지부지하게 말면 서로가 상처받잖아. 내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모를까 나도 이곳에 토박이로 살 거고, 형님들도 토박이로 살 거고 할 테니까 세 명이 잘 합을 맞춰 끝까지 잘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

소속자 님 “우리는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있을 동안은 손님이 많이 오셔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게 바람이죠.”

조정순 님 “노인들, 할머니들을 챙기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세 분이서 하나가 되어 손발을 맞춰가며 잘 운영하고 있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 초반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장님과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계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홍보도 많이 돼서 이 공간이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369사랑방 주요활동

- **밥상 운영** - 마을 탐방객, 일반인 대상으로 식당 운영.
- **특산품 제조** - 수제청과 식혜 등을 직접 만들기 체험행사, 제품 판매.
- **공간 대관** - 스터디룸, 워크숍, 작가 수공예 클래스, 주민 공방, 독서 모임

참고문헌

369마을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369사랑방

환경정의, [활동] 마을부엌 현장조사# ③_369마을 수요밥상

성북구청 블로그, [369성곽여가 품·류] 369성곽마을로 떠나는 여행

신수민

2021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골목골목 따로 떨어져있는 상점과 가게, 요소들을 조사하고 종합하는 과정 통해 동네의 공통점과 특징을 발견해 기록했다. <국제꽃장식대회>에서는 지역의 행사를 소개하면서도 꼼꼼하게 조사했다.

활동목록

<고려대학교 근처 상권의 특징>, <한성대입구역 근처 공연장>, <국제꽃장식대회>, <성신여대입구역 근처 공연장>



고려대학교 근처 상권의 특징



한성대입구역 근처 공연장

국제꽃장식대회

일시: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12:00-13:00

장소: 한성대입구역



조사지 선정 이유

한성대입구역 근처에는 성북천 분수광장이 있다. 이 광장의 크기는 작지만, 다채로운 여러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방문할 가치가 있다. 특히 9월에는 ‘국제꽃장식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행사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국제꽃장식대회는 국내 플로리스트 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대회로, 전국에서 참가자가 모일 정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다가 2022년부터 행사가 재개되어 2024년에 24회를 맞았다. 올해는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현장 조사 내용

국제꽃장식대회는 개방된 공간인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이 대회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이 행사가 지친 도시인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실제로 2022년 국제꽃장식대회의 주제는



국제꽃장식대회 입구



안내문 국제꽃장식대회에 참가한 작가 정보가 적혀있는 국제꽃장식대회 전경 안내문이다.

‘도심 속 정원’이었다고 한다.* 국제꽃장식대회는 방식꽃예술원과 국제꽃예술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그중에서도 방식꽃예술원은 1972년 설립되어 꽃 예술인과 원예장식사를 양성하는 전문양성기관이다. 국제꽃장식대회 현장을 조사한 이후 돌아와 확인해 보니 국제꽃장식대회 출품작 중 선정작을 골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시장상, 국무총리상, 성북구청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 분야는 크게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 장건섭, ‘2022 국제꽃장식대회 ‘도심 속 정원’ 주제로 서울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성황리 개최’, 미래일보, 2022.09.27.



국제꽃장식대회에 출품된 꽃



박경석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겪은 일들을 <보문동주민자치회>를 통해 기록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던 활동 내용을 세세히 기록하되, 일원으로서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하고 비판했다.

활동목록

<보문동주민자치회>



보문동주민자치회

보문동주민자치회

일시: 2024년 1월 1일 - 2024년 8월 26일

장소: 보문동주민센터 (안암로3길 35)



조사지 선정 이유

서울시는 5년 전에 각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시행이 이제 5년 차에 들어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폐지된 곳도 많이 있지만 성북구에서는 지속적인 자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사 활동 및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조사 내용

동 단위 주민자치회의가 구성 및 운영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 보문동 주민 자치회의의 진행 경과를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록을 위해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2023.12.)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을 공모했습니다. 이것은 거리에 현수막이나 홍보전단지를 배포 또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여서 홍보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선진국의 주민자치 사례나 주민들의 참여 활동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기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추천 방식으로 자치위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4년에는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어서 전원 선정되었습니다.



자치위원 위촉식

주민자치회의 구성(2024.01.10.)

선정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치회 회장 선출하는데 2024년 경우 3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부회장 2명, 감사는 경합 없이 단독 후보로 선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위촉식(2024.1.10.)과 함께 주민자치회 출범

위촉식은 성북구청장이 선정된 자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성북구 보문동 3기주민자치회가 출범되었고 위촉식과 이어서 진행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자치회 세칙 개정과 분과명칭 개정, 자치위원 분과지원 관련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인적자원 구성 현황

남자	여자	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19	29	48	3	10	22	13	48

자치분과구성

- 자치발전분과: 주민자치 마을 활동의 중심으로 자치회관 활성화 (18명)
안심 모바일 사용 교육 (5백만 원)
- 문화미래분과: 보문동 콘텐츠 개발, 지역 내 갈등 조정, 보문동 BI (15명)
전통 한방차 만들기 (5백만 원)
반크와 함께하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4백만 원)
- 자연다움분과: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의 영역에서 축제나 행사 발굴 (15명)
성북천 바로 알기 (5백만 원)

자치회관 운영

- 시설: 강당 155㎡, 회의 및 강의실 60㎡, 자치회 사무실 50㎡, 북카페 96㎡
- 프로그램: 10개 (취미·여가 8개, 교양 2개)
- 강사: 7명

주민자치회의

전체 회의 월 1회, 분과회의 월 1회, 임원회의 월 1회, 총회 연 1회

주민자치회의 주요 활동

◆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샵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서울 근교에서 실시 했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구성·내용 측면에서는 야유회 분위기로 평가됩니다. 일부 토의와 교육은 작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부분 즐거움을 주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치위원 워크샵



◆구민체육대회

체육대회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되고 동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동별로 경합을 벌이며 구민들 간에 이웃임을 확인하는 좋은 자리였지만, 참여자를 보면 대부분이 각 동사무소의 자치위원이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의 기본 취지가 약간 형식적이고 행사 주의적인 면이 보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개회





주민총회 연 1회 실시하는 주민총회



주민총회 사업 발표 각 분과에서 선정된 내년도 사업 소개

◆내년도 시행 예정 사업 선정

주민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제안된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분과별로 배정하여 분과에서 검토한 후 관련 공무원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주민총회 때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확정합니다. 투표 행위가 사업 선정이나 탈락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기투표처럼 진행되어 투표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추진

과년에 선정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제안 사업의 취지에



우리역사바로알기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일정과 예산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시행안을 수립 또는 의결합니다.

사업 진행에 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집행은 동사무소 지원관의 지원 아래 실시됩니다. 이것은 자치위원이 상주 근무자가 아닌 관계로, 주로 의결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치위원은 의결만 하고 사업 집행에는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동사무소 지원관이 본인 생각대로 집행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2024년 보문동 주민자치회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사업과 안심 모바일 교육 진행을 예로 들어 봅니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의 경우 우리 역사라는 단어는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고 금년도 자치위원은 사업 진행 일정과 참여자에게 받는 수강료 정도를 의결하는 정도였으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관이 제시한 사업 내용을 추인하는 정도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사업은 동사무소 집행관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문동 주민자치회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의의 모순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까지의 주민자치회의 모습을 기록해보았습니다.

선정된 2025년 사업

- ◆ 보문동 당근당근(5백만 원): 중고 물품 거래로 주민 참여와 소통
- ◆ 실과 바늘(3.5백만 원): 생활용 소품을 만들며 친목과 커뮤니티 형성
- ◆ 우리동네 파워풀(4백만 원):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 ◆ 용기를 내자(5백만 원): 유용한 자원을 재사용하여 자원 낭비 제거와 환경보호
- ◆ 행복한 풍선나라(3.5백만 원): 풍선아트 작업으로 다양한 예술 체험
- ◆ 커피이야기(5백만 원): 커피를 제조하는 바리스타 체험
- ◆ 환경을 그리다(5백만 원):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그림 그리며 상상력 키우기
- ◆ 환경을 키우는 힘(3백만 원):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공기의 질 향상
- ◆ 혼자서도 잘해요(5백만 원): 혼자 사는 세대를 위한 요리 강습

남명희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알록달록 바느질하는 이주여성들〉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직접 발로 뛰며 탐문 하기도 했다. 심도 있는 인터뷰와 끈기 있는 탐문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활동목록

〈정릉천변 느티나무〉, 〈삼선동 고물상 ‘더모아 자원’〉, 〈정릉골 재개발(1), (2)〉, 〈삼선5구역 재개발 예안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코리아코너’ 코디네이터(운영자) 박수현 인터뷰〉, 〈개운산 초피나무와 호랑나비〉, 〈이주민 지킴이 -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알록달록 바느질하는 이주 여성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코리아코너’ 코디네이터(운영자) 박수현 인터뷰

알록달록 바느질하는 이주여성들

일시: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10:30-11:30

장소: 천주교노동사목회관 1층, 2층 (보문로 95), 알록달록 공방



방문처 선정 이유

‘다문화 고부열전’ 이야기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OBS 경인 방송의 ‘다문화 고부열전’을 보게 되었다. 원래 EBS에서 매주 목요일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재방영하는 방송국이 여럿 있는 것 같았다. 아무튼 내용은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얘기가 대부분이며, 결말은 고부(姑婦)가 며느리의 친정에 함께 가서 이곳저곳 관광을 하면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게 되고 화해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요 컨셉이다.

처음엔 프로그램 후반부의 외국 풍경이 멋있고 호기심도 생겨 보다가, 불현듯 먼 나라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도 고생, 그 며느리를 맞아 함께 사는 시어머니도 고생, 그래서 하나같이 서로 모두 고생이다 싶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았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며느리가 미답지 못해 냉랭하게 대하기만 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에 주눅이 들고 눈치도 없는 우즈베키스탄 며느리,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 앞에서 춤만 추는 철부지 며느리에 씬 없이 잔소리하며 혼내는 시어머니에게 언제나 무조건 ‘네’ 한 마디뿐인 며느리도 있다.

한편, 남편과 세차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아내의 얘기도 있다. 결혼 4년 차 부부인데,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다. 고향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다. 그녀는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필리핀으로 보낸다. 그녀가 친정에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고향 가족의 생활이 어려웠다. 그런데 어렵게 마련한 돈을 보내보지만, 친정해서는 생활비가 모자란 다며 전화가 온다. 그러면 그녀는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도 아픈 사연이 있다.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큰형은 고등학교도 보내지 못했고, 그녀의 남편만 어렵게 대학에 입학시켰지만 시어머니가 아파서 중도 포기를 해야만 했다. 양쪽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부부는 힘들게 살고 있다. 컨테이너 집에서 사는 부부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며 밤이면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다.

‘다문화 고부열전’ 이주여성의 특징

두세 달 방송을 보며 이주여성들의 국적, 나이, 한국어 정도, 남편의 직업, 시댁과의 분가 또는 합가 등의 생활 모습을 정리해 보았다.

- ① 방송에 나온 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순으로 많았다.
- ② 출연자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며, 남편은 40대 중반, 시어머니는 70대 초반 정도였다.
- ③ 우리말은 대부분(70% 이상)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아주 잘하는 상위 수준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10명 중 2~3명은 아주 서툴렀다.
- ④ 결혼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직, 영세자영업, 부업 일용직, 농어업 등이 많았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았다.
- ⑤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이주여성은 절반이 훨씬 넘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고부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 ⑥ TV에 나오는 애기의 배경은 대부분 농촌이나 산골 과수원 마을, 아니면 바닷가 어촌이다.

알록달록협동조합을 방문하다

‘다문화 고부열전’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결혼 여성들의 애환과 아픔과 말 못 할 서러움과 그들의 가난한 삶을 보았다. 또한 가족 간 불신의 태도와 폐쇄와 편견과 불공정과 가부장 제도의 잔재로 이국의 며느리가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는 것도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스스로 자립하여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알록달록 가게

마침 우리 성북구에 그런 곳이 있었다. 알록달록협동조합이다.

알록달록협동조합 신선화 이사장 인터뷰

일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5:00-16:00

장소: 알록달록협동조합 공방(재봉실, 노동사목회관 2층)

알록달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운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선화 이사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했다. 활짝 웃으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그녀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먼저 이사장님의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웃음) 전라도 영광에서 태어났으며 50대 중반이에요. 원래 제 전공은 ‘보건위생’이었는데 지인이 하던 재봉공장을 인수하여 일하다 보니 전공이 바뀌었어요. 그 공장은 20년쯤 운영하다가 지난 2010년에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문동 조합 말고도 혜화동에 제가 꾸려나가는 ‘이주여성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보문동 공방과 혜화동 센터를 교대로 오가며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위생’ 전공을 하셨는데, 어쩌다 이주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사연이나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10년 초였어요. 운영하던 재봉공장 문을 닫은 후 중남미 과테말라 아동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동’은 대부분 길거리 노숙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약 2년간 생활 하면서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이 나라의 이주민이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내친김에 귀국 전에 멕시코로 가서 스페인어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귀국 후, 길을 가다가도 외국인을 보면 ‘먼 나라 한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특히 이주여성을 위한 일



신선화 이사장의 성북구 마을학교 교육수료증



신선화 이사장과의 인터뷰

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폴리텍대학에 입학해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2014년에 졸업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직업훈련강사자격도 취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합 명칭이 ‘알록달록’으로 좀 특별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네. ‘알록달록’은 원래 여러 가지 빛깔의 얼룩이나 줄 따위가 어떤 무늬를 이룬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알록달록 색동무늬’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모여 아름다운 무늬를 이룬다.’는 의미로 저희 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염원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재봉 기술을 배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류하며 미래를 설계해 가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잠깐 저희 조합의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면, 이주여성들의 적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모델 만들기,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존감 향상과 행복한 사회통합 지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류하는 상호문화 기틀 마련, 환경과 디자인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제품 개발 등입니다.

조합의 개요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록달록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의 임원진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주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저희 바느질 공방에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자면 우선 출자금을 내고 조합 회원이 되어야 해요. 출자금은 1구좌에 10,000원이며, 최저 10구좌 이상 가입을 해야 해요.

조합원은 이주여성만 가입할 자격이 있나요?

가입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이주여성 외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후원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조합 이사장직은 언제부터 맡으셨나요?

2017년 설립 초창기부터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의 일환인 이주여성 재봉교실로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느리지만 알차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이주민들을 위한 단체로 성장, 발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을 마을기업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키우실 계획이신가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2021년에 사회적기업을 지향하여 관계기관에 인가 신청을 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심사관님 말씀이 매출과 수익이 너무 적어 인가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이었어요. (웃음)

그렇다면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어떤가요?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지요.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저희 조합은 초기에는 조합원이 20여 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물론 그동안 코로나 펜데믹 영향도 컸지요. 그러다 보니 조합원이 만든 제품 판매가 주 수입 원인데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배당 실적도 없어요.

조합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알록달록 제품은 모두 하나하나 정성스레 직접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좋은 품질의 원단과 재료만 엄선하여 만듭니다. 에코백, 앞치마, 도시락 파우치, 와인 파우치, 백팩, 미니가방, 손수건, 미사가방, 테이블 웨어, 삼베 수세미 등 그 외에도 많아요. 제작자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패브릭 제품은 실용성, 디자인, 품질에서 만족도가 높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쉽게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인터넷 판매로 네이버, 11번가 혹은 G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알록달록협동조합’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체 주문도 가능하며 대량 주문은 할인도 해드립니다. 또 가끔 플리마켓을 열어 오프라인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사목회관 1층에 상설 매장이 있으니 언제라도 방문해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공방 이주여성들의 수제 제품

제품 판매를 늘리려면 홍보활동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사목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가톨릭 서울교구의 230여 개 본당에 저희 제품 카탈로그와 간단한 선물을 동봉해서 발송해주시기도 하고, 소식지 <좋은이웃>에 저희 공방과 이주여성들의 활동을 소개도 해주세요.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뒤편의 광희문 성지(2층)에 저희 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성지 기념품 판매장도 설치를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걸 <좋은이웃> 금년 1월호에 실린 조합을 소개하는 제 홍보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주여성들의 알록달록한 바느질 이야기.

결혼 이주여성들이 서로 모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해 패브릭 제품을 만드는 알록달록 협동조합. 저는 이사장 신선화 막달레나입니다. 천주교 노동사목회관 1층에는 다양한 국적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녀들의 이야기에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합을 운영하며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주여성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언어예요. 한국말이 서투니까 수줍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처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시켜보면 쭈뼛쭈뼛 내 눈치만 보며 자꾸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그래서 플리마켓이 열릴 때면 데리고 가서 무조건 팔게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경험을 시켰더니 이제 사람들이 물건값을 묻거나 말을 시켜도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응대를 잘해요. 그럴 때면 흐뭇하고 보람을 느껴요.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 조합의 목적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많이 아쉬웠어요. 공방에 나와 열심히 제품을 만들던 한 조합원이 어느날 갑자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고 수입이 없으니, 집에서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방 작업자에게 작업 시간이나 제품 제작 개수 또는 아이템별로 보수를 주었는데 매출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 것이죠. 그때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네. 오늘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방과 매장에서 만난 이주여성

공방의 베트남 출신 꾸엔

이사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공방 한 쪽에서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며 원가를 만들고 있는 여성이 있어 다가가 물어보았다.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신상품으로 개발한 책가방을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 출신 꾸엔과 대담

작업 중에 미안하지만 잠깐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온 꾸엔이라고 해요. 한국 이름은 윤소현이고 32살이에요. 한국에 온

지 12년 되었고 두 딸의 엄마예요.

조합은 어떻게 알았고 공방에서 재봉일 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5년 되었어요.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다가 알록달록협동조합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 나라 친구를 만나 같이 물건을 만들고 거리에 판매하러 나가는데 너무 좋아요.

한국에 와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한국말이 어려웠어요. 재봉 바느질은 베트남에서도 하던 일이라 쉬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은 재미가 있어 취미로 만들고 있지만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내 가게를 꼭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싶어요. 앞으로 알록달록협동조합에 일이 더 많아지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나에게 알록달록협동조합은 ‘편한 곳’이에요.

매장의 중국 출신 이주여성

1층 매장에서 도우미 일을 한 중국 출신 이주여성을 만났다. 한국 온 지 10년 되었으며 2021년에 조합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재봉 일을 했으며 작년에 매장에서 잠깐 일했다고 한다. 환칠한 키에 쾌활, 소탈한 성격인 것 같아 나이를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펄쩍뛰었다. 여자 나이는 묻는 게 아니라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활짝 웃었다. 40대 초반쯤 되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다. 오늘 만난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즐겁게 사는 이주여성들이었다.



매장의 중국 출신 이주여성 신선화 이사장과 함께 일하는 모습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주여성의 삶을 생각하며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 원인과 배경

결혼 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 사회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

는 이주여성을 말한다. 최근에 결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대충 아래와 같다.

- ① 출생 성비의 불균형으로 결혼 못 하는 남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특히 여성 싱글족이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 ③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남성을 이미 추월했다. 2021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57%라고 한다. 2023년도 공인중개사 합격률도 여성이 50% 이상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 ④ 여성의 농촌사회에 대한 기피로 농촌 총각들이 국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현재 남성 위주의 성차별을 부추기거나 매매혼을 조장해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지적이 많아서 기존의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가 많아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했다.

그런데 한국의 국제결혼 광고에서 여성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베트남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50세 이상 한국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결혼 광고에 얼굴 사진, 키, 몸무게를 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람이 30% 정도이며,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람은 70%로 훨씬 더 많았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중개업소를 통하여 결혼한 부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어서 갈등과 외로움, 소외감을 유발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회적, 문화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과 이주자의 동

* 여성가족부 자료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 이주여성 920명에 대한 연구보고서 자료

화를 강요하는 형태도 부담을 주고 있다.

② 가정폭력과 불화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에 대한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이루어진 결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과 사랑에 씨앗이 싹 트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결혼이라는 순수함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결혼 이주 여성 가정폭력 경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서적, 언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건강상 불이익,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있었다.

③ 사회적 편견과 차별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극우 사상이 있는데 순혈주의와 민족주의 우월의식이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가 강한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더 차별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사회생활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점점 고립되어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④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가구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결혼을 위해 빚을 낸 경우도 있어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가정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은 노동시장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빈곤을 자녀에게 대물림할 가능성도 커진다.

⑤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결혼 이주여성은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입국해서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은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래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장애를 느껴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학년이 높아지고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환경은 경제적 빈곤으로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여성 920명을 상대로 진행한 외부 인구통역 보고서 자료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부모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학습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학습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한국말이 서투른 부나 모에 의한 교육과 부나 모의 모국어인 외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로 인해 두 언어 모두 미숙한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수업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서 언어발달 지체 현상과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혼혈이라는 사실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따돌림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아가 됨으로써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기록단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얼마 전에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라는 책을 보았다.

충북 옥천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받는 부당한 유, 무형의 차별과 폭력,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생생하고 절박한 증언이 담겨 있다. 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옥천에는 약 423명의 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옥천에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며, 이주여성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이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여성의 문제이며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책 중의 한 구절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이주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누군가에 소속된 존재’로 본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하대’ 표현은 일상적이다.

이주여성들이 언제까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듬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슴에 닿도록 꼭 안거나 포근히 얼싸안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그들도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서영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꾸며진 산책로, 성북천〉을 통해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성북천의 벽화에 주목했다. 그 밖에도 그냥 지나간다면 어떤 과거가 있었을지 모를 공간들의 옛 이야기를 조사하고,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함께 기록했다.

활동목록

〈최초의 근대식 운동회, 화류회〉, 〈미아리고개의 변화〉, 〈영화관 아리랑시네센터〉,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꾸며진 산책로, 성북천〉, 〈도심 속 사찰, 보문사〉, 〈‘성신여대 모두의거리’ 상권 특징〉, 〈돈암시장의 역사와 전통〉

도심 속 사찰, 보문사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꾸며진 산책로, 성북천

일시: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11:00-12:00

장소: 성북천



동네에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 행복한 일이다. 성북천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안락한 녹지공간이다. 도심 속 산책로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성북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경사로와 진입 계단도 곳곳에 설치했다. 징검다리·징검여울도 200m마다 조성하여 보다 편리하게 성북천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이 물줄기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던 탓에 ‘성북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성북천을 따라 내려가면 편히 앉아 쉴 만한 큰 바위가 있었다. ‘앉일바위’라고 불렀으며, 이를 한자로 옮겨 ‘안암(安岩)’이라 했다. 성북천의 또 다른 이름인 ‘안암천’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의 하천’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성북천 주변에 복숭아를 재배해 도성에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매년 봄 성북천 일대는 복숭아꽃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으로 북적거렸다. 지금은 복숭아꽃 대신 봄에 벚꽃이 만개해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성북천이 다른 하천과 달리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주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다양한 시설물이 성북천을 빛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문1교 아래에는 3·1운동 당시 보문동의 독립운동사를 재현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잊혀 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애항심을 고취하고자 성북구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돼 조성됐다.

보문2교 인근 담벼락에는 동네 꼬마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웅기종기 붙어있다. 아이들은 놀이터, 빵집, 아파트, 상가와 같이 매일 일상적으로 오가는 장소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까지 마을 이곳저곳을 세심하게 관찰한 후 작품에 표현 해냈다.

주민 참여를 통해 더 활기차고 다채로운 성북천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러 나온 사람, 다리 밑에서 쉬는 사람,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다. 녹지공



아이들이 그린 벽화 보문2교 인근 담벼락에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붙어있다.

간은 창작의 공간이자 여가 및 운동의 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북천 산책로



성북천 산책로

참고문헌

김현정 기자. “[되살아난 서울] (156) 길 따라 멋 따라 걷는 공간 ‘성북천 산책로’”. 메트로신문, 2024.03.05.

신해영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길음 5 재정비 촉진 구역 정릉로31길 한옥군〉을 포함하여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변화하고 있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기록했다. 풍경뿐 아니라 버스노선, 정류장 쉼터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주목하는 섬세함이 있다.

활동목록

〈담장 위 방범용 쇠창살〉, 〈길음로의 변화 1 -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길음로의 변화 2 - 계성고등학교〉, 〈길음 5 재정비 촉진 구역 정릉로31길 한옥군〉, 〈동네생활연구소 한·평〉,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버스 정류장 쉼터〉, 〈7211번 빨간 버스〉, 〈할머니 다락방 카페〉, 〈정릉로 21길 일대 한옥〉



버스 정류장 쉼터



할머니 다락방 카페

길음 5 재정비 촉진 구역 정릉로31길 한옥군

일시: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19:00-20:00

장소: 정릉동 178-55 (정릉로31길 10-3)



길음 5 재정비 촉진 구역은 2023년 12월 재개발이 확정되었다. 아직 표면적으로는 구체적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정릉로31길과 정릉로31가길에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다.

한옥 건축양식의 필수항목은 5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식형 지붕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둘째, 내부 주요부재가 한식 목조 구법으로 지어져야 하고, 셋째, 한식 지붕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넷째, 주춧돌, 기둥, 보머리를 유지하고 주요 구조가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옥 입면 비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정릉로31길 10-3 일대에 있는 한옥들은 한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릉로31길 한옥군 전경

성북구 주요 건축 자산 목록에 따르면 이 한옥들은 1967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정릉동 178-55 일대에 한옥군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골목 세 곳을 사이에 두고 11채가 남아 있다. 10채는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1채는 거리로 향해 있는 벽을 개조해서 가게(동신건

*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kor/life/lifeGuide.do?tab=1>

** 성북구 주요 건축자산 목록, 2p.



동신건축 인테리어



한옥 정면 주춧돌 앞에 반원기둥 6개를 세워둔 것이 특징적이다.

축 인테리어)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옥의 규모가 작지 않아서 한 골목에서 그 가구의 앞쪽을, 다음 골목에서 그 가구의 뒤쪽을 볼 수 있다.

한옥의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면 ㄷ자형의 구조로 되어있는 단층 건물이다. 한옥의 기본 골격을 갖춘 모습은 기와지붕과 서까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경사진 언덕에 지어졌다 보니 가장 하부는 커다란 돌들을 축대처럼 쌓아서 평평하게 바닥을 골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성을 위해 시멘트 작업을 한 곳이 군데군데 보이기도 하다. 그 위로는 널찍하고 길게 깎은 돌을 두 단으로 기초석처럼 쌓은 주춧돌이 집 건축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한 집은 특이하게 이 주춧돌 앞쪽에 시멘트로 반원기둥 모양의 구조물 6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용도는 확실치 않다.

집을 두르고 있는 벽은 타일로 장식했다. 대부분의 집은 하단에 진한 남색의 타일을 깔고 흰색 타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하늘색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한 집만 하단에 패턴이 있는 타일을 깔고 흰색 타일 바탕에 민트 칼라와 핑크 칼라의 타일을 포인트 칼라로 사용했다. 벽에는 외부로 나 있는 창문이 대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2개씩 나 있다.

서너 개의 계단을 오르면 대문이 있다. 육중한 나무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들도 있고, 철문으로 교체한 집들도 있다. 나무문에는 역사의 흔적들이 두껍게 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서까래는 통나무를 방사선 모양으로 설치하여 골격을 세우고 통나무



타일로 벽이 장식된 집

골격 사이를 시멘트로 메꿨다. 이 역시 집을 지었을 당시의 목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집도 있고 지붕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나무로 교체된 집들도 보인다.

지붕은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두 가구와 한식의 지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단장한 가구들로 나뉜다. 지붕을 고친 가구들은 지붕 누수로 공사를 했지만, 한옥 기



한옥 측면 담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개조되었다.



한옥 정면 벽을 붉은색 벽돌로 교체하고 창문과 지붕도 보수되어 있다.

와지붕의 골격은 유지한 채 컬러강판을 사용하여 현대식으로 개조했다.^{***}

성북구는 2012년 12월 31일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 한옥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 보전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한옥 지붕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붕 교체 작업비용을 일부 지원했다.

이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집이 열기설기 엮여있고 ㄷ자형의 구조이다 보니 대문이 ㄷ자형의 지붕 아래에 있고, ㄷ자형의 열린 부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집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길가 쪽에 자리 있는 집을 통해 집의 구조를 그려볼 수 있었고 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성북구는 서울시 전체 한옥의 11.8%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로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라도 남겨둘 수 있어서 다행이다.

^{***} 강북산업지붕공사, “한옥지붕 컬러강판 지붕교체 [서울 성북구]”, 2021.12.12,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B_yynmk8u_8

^{****} 박정일, “한옥의 보고(寶庫) 성북구”, 아시아경제, 2014.01.20.

선종욱

2021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성북구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같이 사람들의 활동이 주가 되는 행사, 플리마켓,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다. 지역 주민들의 웃음을 포착하는 동시에 지역을 위한 노력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활동목록

〈성북구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2024 성북문화바캉스 개장식〉, 〈길음로한마당 축제〉, 〈두근두근별길마켓〉, 〈성북구청소년선도캠페인〉, 〈전통놀이 어울림 한마당〉, 〈길음뉴타운 아나바다 Green장터〉, 〈2024 서울미디어리터러시 페스타〉, 〈우리식당〉, 〈2024 성북구 평생학습 나눔의 날〉



두근두근별길마켓

성북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일시: 2024년 8월 8일 목요일 19:00-19:40

장소: 정릉3동 정릉시장 데크 (보국문로11길)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에는 전통시장이 여러 곳 있다. 그중에서 정릉시장은 수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곳이며, 수많은 상점이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겨우 다닐만한 도로이므로 좁고, 보행 사고 위험이 크다. 시민들이 긴급 대피할 동시에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정릉시장 가운데 흐르는 정릉천에 데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쉼과 모임 특별한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만들었다.

성북구에는 수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다. 그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다.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계도하며,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 등의 물품들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편의점 등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성북구 각동에 각각 15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동 대표들이 모여 성북구 전체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단체 사진 캠페인 전 데크 위에 모인 협의회원들의 단체 사진



캠페인 진행 사진 하단의 사진에서 앞쪽에서 걷는 여성이 성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이인숙 사무국장이다.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원들이 모여 권역별로 청소년 지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릉3동에 위치한 정릉테크 개울장에는 정릉1동, 2동, 3동, 4동 그리고 길음1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원들이 모여 청소년 지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개울장 위 데크를 모임 장소로 정하기 쉽고, 정릉시장 주변의 상점들이 많으므로 상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물품 판매에 관한 내용을 선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2024년 청소년 지도 캠페인이 8월 8일 오후 7시에 실시되었다. 매우 더운 날씨지만 각 동의 대표 2명 이상과 구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 지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청소년지도협의회원들이 모여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 데크 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원을 증명하는 조끼를 착용하고, 어깨띠를 메고 경광봉을 소지한 뒤 두 개조로 나뉘어 개울 양쪽으로 노선을 정하여 상점마다 출입하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주인들에게 청소년 출입과 상품판매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였다.

협의회원들은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방문하는 곳은 물론, 주류, 라이터, 담배,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에도 방문한다. 편의점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는 있으나 구입할 수 없는 물건도 판매하기 때문이다. 협의회원들의 방문으로 업주는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에게 판매 금지된 목록들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원들이 단체로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길을 도는 장면을 볼 때는 지역주민들과 주변 상점의 업주들이 청소년들을 상대할 때의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성북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 사무국장인 이인숙 님의 전언에 따르면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길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선도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인숙 님은 청소년선도협의회 활동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데, 캠페인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었다고 한다.

캠페인은 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안쪽까지 실시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지도협의회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동네 안쪽에 위치한 업소까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마침을 기억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조사지 특징

정릉시장 데크는 정릉시장 한 가운데 흐르는 정릉천 위를 덮어서 만든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정릉시장 축제, 정릉천에 관한 이야기, 각종 모임의 집결 장소 그리고 시민들의 쉼 등으로 활용된다. 데크 한 가운데는 유리가 있어서 정릉천에 흐르는 물을 관찰할 수 있다. 데크 한 가운데 유리는 어린이들에게 물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소가 될 것이다.

정릉시장 데크 아래 정릉천은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시작되어 내부순환도로 아래까지 흐르고 있다. 정릉천 양쪽으로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하며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다. 여름철에는 정릉천을 따라 시원하게 부는 바람으로 매우 더운 날씨에는 야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만 하천 변이라 모기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정릉시장 주변 주민들, 정릉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릉시장 데크를 거의 알고 있다. 그만큼 찾기 쉽고, 기억할 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정릉천변 산책로에는 통행이 금지된다. 물살이 세고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와 정릉시장을 아끼는 주민들과 단체들은 수해에 대비한 대책, 모기 등의 해충을 예방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노재훈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인권의학연구소〉와 〈1970년대 성북구 버스회사와 버스안내원 파업〉을 통해 이미 흔적이 사라져 알아볼 수 없는 공간의 과거를 조사,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꼼꼼한 조사가 기록의 깊이를 더했다.

활동목록

〈1970년대 성북구 버스회사와 버스안내원 파업〉,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1970년대 성북구 버스회사와 버스안내원 파업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성북구 내 천주교의 인권 활동



일시: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10:0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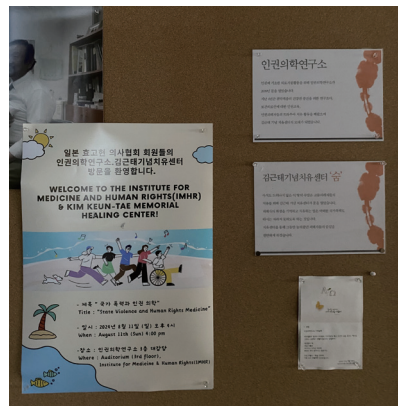
장소: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 (길음로9길 46, 서울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 1층)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거두 김근태는 천주교와 관련이 깊다.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창립식을 돈암동에 위치한 상지 피정의 집에서 거행하였으며, 말년에는 천주교에 귀의하였으며, 김근태의 별세 후 명동성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반대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가, 현재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성가소비녀회의 설립자 생제 피에르(한국명 성재덕)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성재덕관에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김근태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의 이름을 딴 국가폭력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가 가톨릭 건물에 위치한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 장소를 조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비녀(小婢女)-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처럼 불우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가(聖家)-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의미한다. 즉, 명칭에서부터 껍박받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성가소비녀회가 설립된 것은 1943년의 일이다. 성가소비녀회는 빈자 및 병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주 목표로 삼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성가보육원, 미망인 원호 양재소 등을 건립하였으며,



성재덕관 정면



1958년에는 성가병원을 세우는 등 의료활동에도 힘썼다. 성가소비녀회는 본래 서울 혜화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1968년 지금의 정릉 본원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성가소비녀회는 지금도 4대강,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이나 해고노동자 및 세월호 희생자와의 연대, 지역 활동가들과의 연대 사업에 활발하게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에 헌신하고 있다.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는 성재덕관 1층에 자리해있었다. 인권클리닉을 겸하는 회의실, 그리고 본 공간인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가 위치해 있었다. 그렇다면 왜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가 왜 성재덕 신부를 기념하여 건립한 성재덕관에 위치해있는 것일까?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성재덕관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었는데, 성재덕관 근처를 배회하던 중 마침 지나가던 수녀님께서 감사하게도 내부를 자유롭게 관람하라며 문을 열어 주셔서, 위 질문의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성재덕관 건물 내부에 적혀 있었던 설립 취지에 의하면, “예수처럼 가난하고 고통받은 이들과 함께 하며 주의 성스러운 길을 따르는 수조공동체로서, 설립자를 기념하여 만든 성재덕관에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즉 앞서 설명한 성가소비녀회의 설립 취지와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의 설립 취지가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 기념치유센터는 설립 취지 및 시기가 약간 다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인권에 기초한 의료 지원 활동을 위해 2009년 건립되었으며, 김근태 기념치유센터는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2013년 문을 열었다. 김근태 기념치유센터가 개소한 6월 25일은 유엔에서 선정한 ‘세계 고문 희생자의 날’의 전날이기도 하다.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의 설립 주



체는 인권의학연구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김근태와 민주화운동 동지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바 있었다. 함세웅 신부는 김근태 전 고문 별세 직후 추모 미사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건립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인권의학연구소 주도하에 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내 첫 민간 전문치료기관으로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를 개소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왜 치유센터의 명칭에 김근태의 이름이 붙었는지, 왜 이 치유센터가 가톨릭 시설인 성재덕관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오두석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북악스카이웨이 흔적을 찾아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지역의 이야기를 담았다. 조사지를 방문해 조사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인터뷰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기록했다.

활동목록

〈북악스카이웨이 흔적을 찾아서〉



북악스카이웨이 흔적을 찾아서

일시: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10:00-12:00

장소: 북악스카이웨이 (북악산로 일대)



조사지 선정 이유

성북구는 지리 여건상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이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과 종종 비교되고 있다. 그중 종로구가 품고 있는 역사물과 관련이 많아 주목을 받는다. 향후 다른 자치구와 경계한 지역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서로의 공통점과 특성 등을 비교할 때 성북구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첫 번째로 종로구 자하문 쪽에서 시작하여 아리랑고개까지 연결된 북악스카이웨이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역 주민인 나를 인터뷰하다

본인은 주민기록단이자 약 20년간 성북구 돈암동에 거주하며 매일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를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길로 평범하게 다녔다면 이번에는 점차 잊혀 가는 북악스카이웨이 흔적 등을 현장답사 중심으로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인은 북악스카이웨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1월 21일 밤 열시 경 북한괴뢰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긴장된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안방에 가득 찼다. 1968년 추운 겨울 어느날, KBS 라디오 뉴스는 이렇게 시작했다. 당시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본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북한 땅에서 6·25 전쟁을 몸소 겪었던 어른들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걸 짐작했다. 며칠 후 우리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모여야 했고 ‘공산당타도’ 같은 구호도 목 놓아 외쳤다. 이때 민간인과 군경의 희생이 있었던 1·21사태로 인해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청와대 북쪽 지역이 개발되며 북악스카이웨이가 놓이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뒤엔 관광 명소로 변화하며 서울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한 번쯤 찾아가 사진을 찍어야 하는 단골 장소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본인이 중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고모 집에 놀러 갔을 때 북악스카이웨이를 가고 싶었지만, 당시 택시를 타야만 갈 수 있다고 하여 무척 아쉬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서울에 정착하며 자주 찾아갔던 그곳은 지금도 포근한 느낌으

로 반겨주고 있다. 점차 1·21사태는 잊혀 갔고 서울 북쪽의 드라이브 코스로만 남아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

북악스카이웨이 개요는?

북악스카이웨이의 명칭은 서울의 어느 길보다 하늘과 가깝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는 직역하여 북악하늘길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공식 도로명은 북악산로로, 종로구 부암동(창의문길)에서 시작하여 성북구 종암동 23-10(성북 구간은 정릉동, 성북동, 돈암동, 종암동 등을 경유하고 있음)까지 9.7km 거리이다. 서울의 내산 중 하나인 북악산의 명칭을 사용하여 북악산로로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한다.

북악산 허리에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 계곡 쪽에 교량을 전체 4개 설치했는데 성북구에 제1교(정릉역에서 460m)와 제4교(정릉동 북악골프연습장 앞), 종로구에 제2교(부암동 백사실계곡 입구)와 제3교(부암동 창의문 앞)가 있다. 도로 준공은 1968년 9월이나 교량은 1970년 4월 15일로 준공된 것으로 보아 추후 보강공사 등을 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관할 부서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북악스카이웨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도로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이 길은 승용차가 주로 다니지만, 자전거 라이더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이 찾는



북악하늘길 가는 길 표지판 과거 북악스카이웨이였음을 알리는 부가 내용은 없다.

자전거 라이더들의 성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2000년대부터는 차도 옆에 산책로가 종로까지 연결되어 등산 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본인은 북악스카이웨이에서 가까워 운동을 자주 다니는데, 인터넷에 이 길이 알려지며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가끔 그들과 대화할 때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연령대가 50~60대인 경우에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성북구에 거주하는 젊은 층은 관심조차 없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이 도로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거의 없는 결과로 생각한다. 아직까지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악스카이웨이가 건설된 의미는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북악스카이웨이를 알려주는 당시 흔적이 남아있는지?

성북구민회관 위 1162번 마을버스 종점에서 종로구 방향의 차도 경계 담장에는 ‘북악하늘길 가는 길’로 표시되어 있으나 북악스카이웨이 부기 표시가 없어 이 길이 북악스카이웨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행히 외길이라 도로를 계속 따라갔지만, 여전히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갈 즈음 오른쪽에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정릉의 매쉬 담장과 만나는 인근 차도의 전봇대에 작은 글씨로 ‘스카이웨이 사진 촬영 금지’ 도로표지판을 붙여 놓았는데 처음 보았던 스카이웨이라서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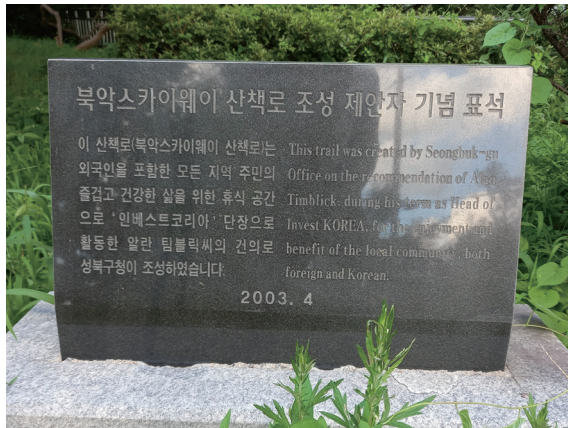
국민대학교 방향 북악골프연습장 길목 위 다리 양 끝에는 ‘북악스카이웨이4’라는 낡은 동판



다리 이름 북악스카이웨이4 동판 (북악골프연습장 앞) 북악스카이웨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네 번째 다리인데 정릉부터 1번으로 시작한 교량신축 순서가 일치하지 않았다. 관할부서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를 표시하고 있으나 연혁 등은 없다.



북악스카이웨이 차량 통행 차단 시설 북악스카이웨이 5교 옆 차량 통행 차단용 바리케이드가 접혀 있는 모습.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 제안자 기념표석

이 옛모습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도로가 북악스카이웨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대로 표기한 안내판이었지만 위험한 차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 옆에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대나 검문을 하거나 차량 진입을 막는 용도로 설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리케이드가 다리 양쪽에 다소곳이 접혀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통행료(대형 100원, 소형 50원)를 징수했다고 하니 그때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차량만 다니던 도로 옆 빈 공간에는 외국인의 건의로 성북구에서 산책로를 조성하였다는 기념표석이 다음과 같이 세워져 있어 이 도로가 북악스카이웨이였음을 알리고 있었고, 이후 종로구 경계 지점인 하늘마루까지 별다른 표식 없이 도로와 산책로가 이어지고 있었다.

초행자는 북악스카이웨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블로거가 인터넷에 북악스카이웨이를 찾아가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코스별로 답사해 보았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도보 또는 01번 마을버스 종점 하차) → 하늘한마당 → 하늘다리 → 다모정 → 하늘마루 → 북악팔각정 → 북악스카이웨이 2교 → 부암동(창의문)
* 북악팔각정까지 중간에 매점이 없음

- ①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주변: 성북동에 대한 안내는 일부 있었지만, 북악스카이웨이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표식이 전혀 없었다. 주변 사람에게 아는지 물었으나 잘 모르고 있으니 도보 이용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 ② 마을버스 하차 직후: 01번 버스 종점인 동구마케팅고 입구에서 하차했지만, 북악스카이웨이 안내판이 없었다. 결국 한신아파트 단지 맞은편 언덕의 계단으로 올라갔다. 많은 이정표에는 북악스카이웨이 표시가 전혀 없었다.
- ③ 이후 외길이라 계속 산책로를 따라갈 수 있었지만, 중간에 북악스카이웨이 이정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길상사 이정표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약 800m 지점에 길상사가 있음을 알리는 방향 수준의 작은 이정표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 아쉬운 점과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 ① 과거 이 도로가 1·21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이유 등을 담은 표지판을 알기 쉽게 여러 곳에 설치하면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북악하늘길로 순화된 명칭 옆에는 북악스카이웨이의 명칭도 함께 표기하면 좋을 것이다.
- ② 북악스카이웨이 인근에는 심우장, 간송미술관, 길상사 등과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이 자리 잡고 있으나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으며 작은 크기의 '길상사 800m' 이정표가 하나가 전봇대에 유일하게 붙어있다. 문화유적으로 넘치는 성북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③ 때죽나무, 물푸레나무 등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주변에 식재된 나무가 많지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없으므로 주요 지점의 나무에는 나무 명, 과명, 특성 등이 간략하게 표시된 이름표를 달아주면 자연 친화적인 성북구를 알리는 계기가 될 듯하다.
- ④ 산책로 옆에는 교목 가로수가 많아 야간에는 가로등의 불빛을 가리고 있어 어두우므로 공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야간보행이 가능하게 한다.
- ⑤ 북악스카이웨이 차도에 승용차와 자전거가 혼재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말엔 자동차를 통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부처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지성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열린 아파트)〉를 비롯하여 〈심우장 한용운 다례재〉,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공사 현장〉와 같이 다양한 주제에 폭 넓은 관심을 가진다. 조사대상에 대한 꼼꼼한 기록에 더불어 솔직한 감상이 기록에 색을 더한다.

활동목록

〈심우장 한용운 다례재〉,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공사 현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열린 아파트)〉,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공사 후〉



심우장 한용운 다례재



주민참여 아나바다



아나바다 행사의 체험 풍경



현장 조사 내용

성북구는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민 소통, 취미 등 공동체 활성화, 단지 내 순찰 활동 어르신 보안관, 공동체 활동을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아파트 등입니다.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에서 5월 25일 진행된 아나바다와 9월 7일 진행된 영화제는 공동체 활동을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아파트 사업입니다.

아나바다 행사 및 체험과 아파트 봉사 모임 ‘다나눔회’에서 직접 준비한 건강한 먹거리가 저렴하게 판매되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천으로 몇 차례 연기된 영화제는 이미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내로 푸드트럭이 들어와 먹거리를 판매했는데요, 중앙의 잔디밭에서 간식을 먹으며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엔 설치된 스크린에서 쿵푸팬더를 상영했습니다. 오래된 영화임에도 야외 잔디밭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스크린의 영화에 집중하는 어린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지 특성

2007년 10월 입주한 아파트로 조금은 오래된 아파트이나, 지상 주차장이 없고 단지 내 수목 관리가 잘되고 있어 경관이 좋고, 순환도로, 간선도로 인접하여 교통이 좋아 접근성이 좋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된 봉사단체 ‘다나눔회’가 있어 10년째 주민 소통, 화합, 친환경 실천, 체험, 취미,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 등의 분야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혜선

2023년 상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상점가’〉와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주택가’〉로 이어지는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 중인 하월곡동의 풍경을 섬세하게 기록했다.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록은 길음2동, 길음역 1번 출구에도 이어졌고, 골목골목을 많은 양의 사진에 담았다.

활동목록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상점가’〉,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주택가’〉, 〈길음2동, 길음역 1번 출구 ‘상점가’〉, 〈길음2동, 길음역 1번 출구 ‘주택가’〉



길음2동, 길음역 1번 출구 ‘상점가’



길음2동, 길음역 1번 출구 ‘주택가’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주택가’ (신월곡 1구역)



일시: 2024년 8월 25일 목요일 17:30-18:00

장소: 하월곡동 주택가 일대 (동소문로 42번가)

조사지 선정 이유

‘동소문로 42번가’ 일대를 기록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때만 해도, 도로의 가장 길면인 상점가에만 주목했었다. 그러나 좁고 작은 골목으로 이어진 그 안쪽에서 찾은 주택가는 속상하리만큼 정겹고 매력적이었다.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하월곡동 재개발지구의 다른 길과 속, 주택가의 이면과 그 자취를 그냥 보내기에 너무나 아쉬웠기에, 바로 다음 날 나는 걸음을 옮겨 ‘주택가’의 종류, 입면 등등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보기로 하였다.

현장 조사 내용

결과 안

하월곡동의 첫인상인 상점가와 그 뒤편의 모습은 쓰임에서 비롯된 입면 성격이 분명히 달랐다. 일단 커다란 간판의 부재와 즐비한 벽돌 건물들의 모습은 상점가보다 서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한옥과 양옥 그리고 다세대 주택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보이는 주택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이면 보이는 각 집의 개성은 거주하던 사람들의 삶을 잠시나마



벽돌 건물이 있는 골목

상상케 했다. 디테일 한 장식물들을 제외하면 크게 한옥과 양옥 다세대 건물로 나뉘 볼 수 있



‘공가’가 새겨진 다양한 주택들

었는데, 잘게 나누어진 골목별로 거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가지의 거주 형태가 섞여 있음에도 조화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옥과 다세대 주택이 한옥에서 출발한 (다소 흔해진) 건축양식인 탓도 있겠지만, 지붕의 형태가 대체로 같고, 색감이 붉은 또는 밤색을 이루고 있어 통일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빨간 벽돌집

좁고 작은 골목으로 이어진 그 뒤편엔 거리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히 하는 빨간 벽돌의 주택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은 떠나간 사람들을 간신히 붙잡아 놓은 듯, 일부 생활감이 녹아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황량히 비워진 상태였다. 역시나 그 시절 서울의 인구와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재가 빨간 벽돌이라 당연한 풍경일지도 모르겠다.



‘공가’가 새겨진 한옥들

주택가 사이사이 간간이 보이는 세탁소와 점집들

동소문로 42번가의 앞면과 달리, 뒷면은 거의 확실히 주택이 주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세탁소나 점집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상가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나무

골목에 유난히 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집마다 심어진 나무들이 대

부분 감나무구나, 알 수 있었다. 아무도 따지 못하고 다 떨어져 썩어가는 감의 모습이 이제는 황량하게 비워진 골목의 풍경을 대변하는 듯해서 가슴이 아팠다.

촘촘히 이어진 골목들

주택이 막다른 듯 아닌 듯, 끝없이 이어져서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사람들이 가득하던 그 시절 이곳을 구경했다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가 사이 상점들



주택가 사이 골목들

이가현

2023년 상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성북천변 주상복합 건물과 가게들〉과 경동고등학교 주변, 돈암시장 인근 등 사람들이 거주하는 풍경에 주목했다. 건물과 점포, 거리의 특징을 설명하며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를 실감나게 기록했다.

활동목록

〈경동고등학교 주변 모습 기록〉, 〈성북천변 주상복합 건물과 가게들〉, 〈돈암시장 인근 주택가〉, 〈성신여대의 오래된 한옥 건물 답사〉, 〈성신여대 인근 골목 근대 한옥 답사〉, 〈성신여대 인근 골목 근대 한옥 답사 - 연이재〉, 〈성신여대 오래된 가게(봉다리수퍼와 그 인근)〉, 〈성북연극 페스티벌〉, 〈성북구의 어린이 공원, 꿈나라 어린이 공원〉, 〈보문동의 오래된 가게와 레트로 느낌 가게〉



돈암시장 인근 주택가



경동고등학교 주변 모습 기록

성북천변 주상복합 건물과 가게들

일시: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19:00-19:30

장소: 성신여대 인근 성북천변 주상복합 건물과 가게들 (보문로36길)



성북천은 청계천의 한 갈래의 개천으로 성북구의 여러 개천 중 하나이다. 시작점은 한성대 입구역이며 대광초를 지나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설동에서 끝나고, 청계천 본류와 이어진다. 성북천은 서울역사박물관 생활문화자료조사 중 2021년 돈암 편의 주요 내지 사진으로 활용될 만큼 성북구, 특히 돈암동과 삼선동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7년 청계천 복개 사업과 함께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었으며 2010년까지 여러 단계의 복개 사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성북천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주요한 결절점 역할을 하는 곳이 성신여대 옆에 위치한 성북천 부근이라고 생각한다. 성북구에는 국민대,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교를 포함하여 많은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밀집하여 있으나, 이들이 주요하게 만남을 가지는 장소는 성신여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신여대가 미아리고개나 안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변화한 거리이자, 학생들이 주로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강북구로 넘어가면 수유, 종로구로 넘어가면 혜화가 있지만 성신여대만큼 학생들을 위한 가게들이 많은 아기자기한 느낌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만남의 공간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성신여대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종종 산책을 하거나, 귀가하거나 할 때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를 정하거나 함께 성신여대에서 놀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분기점으로 성북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성북천은 주민들의 주요한 여가 활용 공간이기도 하다. 반려견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기도 하며, 러닝 크루 등의 모임이 우르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편의점에서 음료와 과자를 사서 성북천의 계단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만큼 성북천은 성북구민의 삶에서 가장 익숙한 장소이자 가장 자주 활용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북천변에는 가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로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점차 카페, 술집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벚꽃 철에는 대기가 스무 팀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카페가 많



오향돈돼지 윗층의 건물이 각각 지붕이 있는 형태가 특
이하다.



추랑 레트로한 느낌으로 리모델링한 1층 가게와 윗층의
대리석 질감의 외장재가 대비된다.

이 생겨, ‘성북천 카페거리’라는 별칭으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음식점이 많기는 하지만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입점해 있다. 옷 가게, 카페, 술집, 인테리어 관련 업체, 부동산, 세탁소 등 외지인들보다는 성북구민들에 초점을 맞춘 듯한 가게들이 위치해있다. 이러한 가게 종류의 양상을 보면 최근 외지인이 많이 방문하는 명소로 꼽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북구민들에게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성북천이 유명세를 타면서 외지인을 위한 가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기 전에 성북구민들을 위한 성북천변의 가게들을 기록하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성북천변의 가게들은 주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부수거나 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5층 이하의 건물들이 위치해 있으며, 1층 혹은 2층까지를 가게로 활용하고 그 윗층은 주거 혹은 소규모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건물들의 모습이 획일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지어지는 연립 주택 혹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단조로운 외관에 비슷비슷한 형태로 지어지는 건물이 많다. 이는 대체로 네모반듯한 사각형 형태의 무채색 건물이 밖에서 보기에



창호공사 상가로 사용하는 아래층과 주거용의 윗층 외장 재 재질이 서로 다르다.



진양세탁소 외지인이 아닌 성북구민을 타겟팅한 업종. 옆의 건물과 외장재가 확연히 다르다.

깔끔해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자연스레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성북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붉은 벽돌을 활용한 조적식 건물, 요새는 보기 힘든 외부 계단과 그 위에 설치해 둔 빗물막이, 단층에서 5층 이상의 건물까지 다채로운 층수의 건물들, 그리고 페인트칠한 외벽, 대리석 느낌의 외벽 등 다양한 질감의 외벽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해 있다. 이것이 성북천변을 좀 더 정감 있고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지예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반평생 41년 봉사자의 삶의 여정, “봉사자 이희자님” 인터뷰〉와 〈성북 돈암1동 제4회 주민총회 행사〉 등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 밖에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성북의 문화와 풍경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활동목록

〈반평생 41년 봉사자의 삶의 여정, “봉사자 이희자님” 인터뷰〉, 〈성북 돈암1동 제4회 주민총회 행사〉, 〈칠월 칠석 수명 장수 고사〉, 〈성북구 소재 성북천의 다양한 다리〉, 〈제8회 돈암1동 한마음 축제〉, 〈새롭게 조성된 개운산 확대경〉



성북구 소재 성북천의 다양한 다리



성북 돈암1동 제4회 주민총회 행사

반평생 41년 봉사자의 삶의 여정, “봉사자 이희자 님” 인터뷰



일시: 2024년 7월 9일 수요일 12:00-14:00

장소: 아룻간 카페 (화랑로18길 34)

개요

성북구의 따뜻한 공동체, 나눔으로 만드는 봉사자의 행복한 삶의 여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술자 선정 배경

보통 사람으로 41년 반평생을 봉사자로서 살아온 따뜻한 삶의 여정을 담아 후세에 본보기가 되고, 후배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존한다.

나눔과 베품을 목표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는 이희자 님의 봉사로 채워져 있는 일과를 통해 처음 봉사를 시작한 1986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여정이다.

그 옛날 그 시절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향이며, 1946년 2월 8일생이다. 12남매(아들 8명, 딸 4명) 중 여덟째이다. 할머니께서 애지중지 길러 주셨으니 기른 정이 더 크고, 이 나이가 되도록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졸업 후 성북구 장위동으로 이사를 왔고, 종로 신신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남편은 종로구 세운상가 전자 제품 가게를 운영했다. 1남 2녀를 낳고 우리 부부는 서로 보듬어 주며 열심히 살았다.



2023년 국민통합 김장봉사



한국전쟁 74주년 기념행사

상월곡 삼태기 마을로 입성

38세에 허리 통증이 심해, 누워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팠다. 남편이 여유 있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 나가서 봉사를 하자. 이제부터 봉사하는 삶을 살자.” 하고 다짐하였다.

1986년도 말경 새마을 문고 회장을 시작으로 봉사의 연을 맺었다. 막내딸이 중앙일보 전국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등본을 발급하러 갔다가 동장님의 추천으로 새마을 문고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책을 구매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책에 일련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날을 되돌아보면 열정과 뿌듯함에 눈물이 난다.

월곡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고 대여 해가 문고 도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였다. 당시 새마을 문고는 성북구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이루는 공간이었고, 막내딸도 숭의여자전문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월곡2동에서의 활동

① 월곡2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캠프로 봉사 시작, 현재 회장직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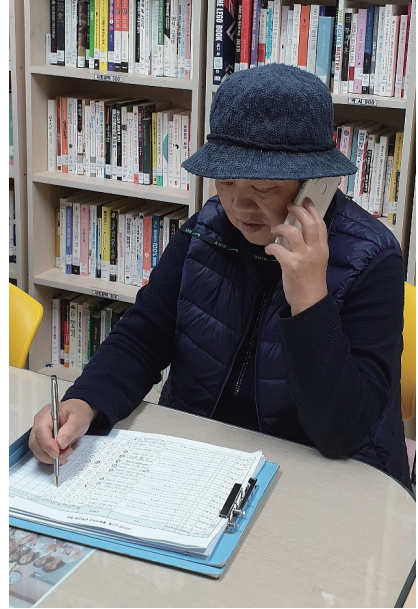
독거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말벗과 검해 건강도 챙긴다. 위급 시 방문 하기도 한다.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②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6·7대 회장 역임(6년 임기 만료)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은 큰오빠의 영향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성북구 향군 여성 회원들과 음식을 조리해 매달 20여 가정에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충·효 보훈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의 친목 도모,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③ 보훈회관 6·25 사무실 봉사활동

6·25 참전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쌀과 음식을 전달한다. 보훈의 달에 전적지를 답사하고 음식과 간식을 챙겨 전달하며 나눔과 베풀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참전용사를 예우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독거노인 안부전화 소통



삼태기마을 사랑방 월곡마루

④ 월곡2동 삼태기 마을 내 월곡마루에서 부위원장 활동 중

삼태기 마을의 주민 공동시설에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비영리 상호인 “신마을 식당”을 열고 조리 및 배식 봉사에 참여하여 지역 돌봄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은 단 2,000 원에 밥 한 끼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지역주민 누구나 집밥의 엄마 손맛을 느끼며, 허기를 채울 수 있다.

⑤ 월곡2동 종합사회복지관 봄봄봄 마을 활동가로 활동 중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하며, 주민 홍보 및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월곡마루에서 봉사자들과 음식을 조리하여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고, 봉사자들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라포를 형성하고 있다.

수여받은 봉사상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시장상 이명박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시장상 박원순
2019년 12월	성북구청장 이승로 (인증패)
2020년 01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상(공로상)
2023년 09월	서울특별시시장상 오세훈

인생 후반기 삶의 여정

봉사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보람되고 즐겁다. 자부심과 나의 만족감, 성취감이 나를 더 강하게 정신을 잃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준다. 하루를 즐겁게 봉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닌 나를 위한 봉사이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다.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을 이루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라 주는 회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나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다.

글을 마치면서 내가 만난 이희자 님의 모습

표정에 온화함과 여유가 있으시며, 말씨에는 리듬을 타듯 살랑살랑 봄바람과도 같다. 성품은 절제된 고집과 똑 부러지며 단호하신 면도 있다. 타인에게 호의를 보이시며 친절의 말씨는 연륜이 묻어 우리 시대 어머니상이시다.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언제까지 봉사 하실 계획이신가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겠다.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으신가요?

승가원에 입소한 태호(가명, 양팔과 허벅지 없이 출생)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퍼즐을 맞추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집에 와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내게 봉사를 하도록 동기부여 시켜주었다.

취미생활은 있으신가요?

나는 봉사가 취미야!

체구가 작으신 어머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면 된다.

인터뷰 마지막 날 나는 어머님을 존경하고, 더욱 강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아드렸다.



삼태기마을 동네 골목 청소

이동미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우리동네 부지런한 봉사자 이순진 여사님 인터뷰〉와 〈봄봄봄 마을 활동가〉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천장산 산신제, 야시장과 같이 축제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마을의 풍경을 기록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활동목록

〈월곡 삼태기마을〉, 〈봄봄봄 마을 활동가〉, 〈우리동네 부지런한 봉사자 이순진 여사님〉, 〈천장산 산신제〉, 〈서울 국유림관리소 내 삼태기숲〉, 〈2024 달빛 오거리 야시장〉, 〈천장산 산산책길-청량근린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한국살이 30년 한국에서 봉사활동 하는 고야 대루미 총무님〉



천장산 산신제

우리 동네 부지런한 봉사자 이순진 여사님 인터뷰

일시: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16:00-19:00

장소: 월곡2동



월곡2동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순진 여사님(65세)을 소개합니다.

23년 3월부터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순진 여사님은 지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히 활동적으로 봉사에 임하십니다. 주변 봉사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순진 여사님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및 조사 내용

이순진 여사님은 자녀가 중·고등학생 시절 학교 어머니회에서 한 봉사활동에서 영향을 받고 자녀분들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월곡2동 9통 통장(9년), 우남아파트부녀회장(7년), 캠프자원봉사단(20년), 구석구석 발굴단(4년), 봄봄봄 활동단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일로 봉사 했습니다.

캠프자원봉사단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 드리기와 반찬 배달을 정기적으로 하고 구석구석발굴단에서는 월곡2동의 고립 가구찾기, 고립가구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청소와 쌀 및 생필품 전달을 했습니다.



이순진 여사님 월곡2동에서 이순진 님과 인터뷰

20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이순진 여사님이 봉사활동 하는 것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남편분(전직 경찰)께서 지금은 동네 배가 곪은 어르신이나 차비가 부족한 어르신



배달 반찬 만들기 매월 고립 가구 반찬 배달을 위해 장을 봐와 3~4가지 반찬을 만들어 준비한다.

들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순진 여사님 본인의 성격이 거만하고 경솔한 편이었는데,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부드럽고 선하게 변화된 것을 가족들과 이순진 여사님 스스로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온몸의 마비증세로 휠체어를 3년간 탔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예전보다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감사하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학교 어머니 봉사단에서 간 장애인의 집에서 목욕 봉사를 할 때. 혼자 100명을 목욕시켰는데, 땀으로 온몸이 젖었지만, 마음만은



김장하는 날 수육 삶기



마을 활동가 위촉장



가마솥 두부 만들기 요리 및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시골 집에서 직접 콩으로 두부를 만들기도 한다.

너무 뽐냈던 그 시간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석구석발굴단에서 찾아간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독거 어르신 집에서 마대자루 열 자루의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해 준 기억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이순진 여사님

다양한 에피소드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 시간들이 소중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싶고 나를 기다리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어요. 봉사는 결국 나를 돌아보고 더 성장케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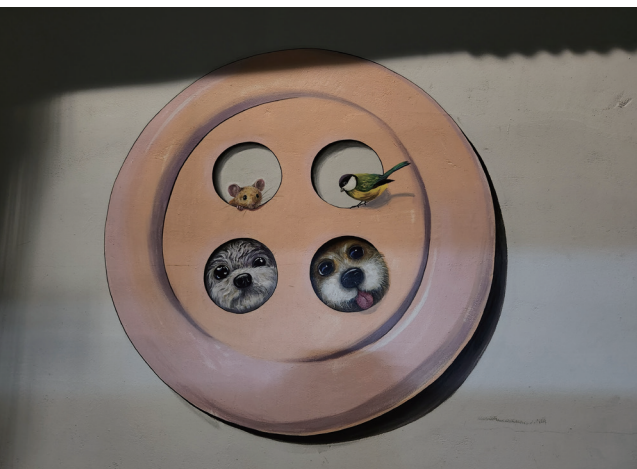
채혜정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성북문화원 앞 및 오패산로1가길 벽화〉에서 성북구에 있는 다양한 벽화에 주목했다. 웹사이트, 혹은 게재 되어있는 온라인 기사를 확인하여 조사하고, 기존의 기록과 비교·대조하며 현재 벽화의 모습을 새롭게 기록했다.

활동목록

〈성북문화원 앞 및 오패산로1가길 벽화〉



성북문화원 앞 및 오패산로1가길 벽화

성북문화원 앞 및 오패산로1가길 벽화



일시: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19:40-21:40

장소: 성북문화원 앞 (성북로4길 13-8(동소문동 1가) 및
월곡1동 오패산로15길, 1가길

조사지 선정 이유

길을 거닐 때 우연히 눈에 벽화가 들어오면 화단에 예쁘게 활짝 핀 꽃들을 본 듯한 기분 좋은 감상에 잠기고는 했다.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으러 성북문화원을 오갈 때 성북문화원 근처 벽화를 보게 되었고, 벽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차에 성북구에 있는 벽화에 대해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 이미 등록된 벽화로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사 내, 정릉시장, 북정마을, 369마을, 정릉골, 장수마을,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삼선교로10다길, 삼선교로4길, 삼선교로14길, 성북로, 성북근린공원, 삼선동2가, 아리랑시장 인근 주택, 화랑로7길, 경신중고입구 방면 성북동주민센터, 동구마케팅고 정류장 뒷편, 보문동 성북천 산책로, 박경리 가옥 담장, 성북문화원 앞 이쾌대 벽화가 있었다.

그 벽화들을 제외하고 찾아보니 2009년 9월 20일에 등록된 기사*에서 동소문동 벽화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내용과 2024년 5월 13일에 등록된 기사**에서 2024년 주민자치계획 제안 사업으로 추진된 월곡1동 벽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다. 2009년 동소문동 벽화의 현재 모습과 관리 상태가 궁금했고, 월곡1동 벽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었다.

벽화의 구체적인 위치는 동소문동 1-1번지 성북문화원 앞 4차선 도로 양편의 벽면과 월곡1동 오패산로15길이었다. 오패산로15길의 벽화의 디자인 및 도안 등은 박승희 작가가 맡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2022년에 박 작가님께서 작업했다는 오패산로1가길에도 가볼 생각을 했다.

* 한대광, “성북구, 41m 벽화 단장 ‘밝은 도심 풍경’”, 경향신문, 2009.09.20.

** 김승우, “주민들이 직접 나서 ‘곱창골목’을 ‘벽화골목’으로”, 조선일보, 2024.05.13.



건너편에서 찍은 벽화 전체 모습 2009년의 기사 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구도에서 찍으려고 했다.



성북문화원 앞 벽화

인터뷰 및 현장 조사 내용

2009년 9월 20일의 동소문동 1-1번지 성북문화원 앞 벽화는 2024년 현재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26일에 새롭게 도자 벽화 갤러리로 조성했다고 한다. 바로 앞서 조사지 선정 이유를 기술할 때 언급했던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으러 성북문화원을 오갈 때 봤다는 그 벽화였다. 벽에 직접적으로 페인트칠하는 벽화가 아닌 수십 개의 도자 타일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다. 건너편 인도에서 봤을 때 벽화는 맨 왼쪽부터 이쾌대의 자화상, 권진규 작품, 성북구 문인(박경리, 이육사, 박완서), 이육사의 청포도, 날아다니는 새, 심우장과 승무 순으로 붙여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 모양의 도자도 여러 개 붙어있는데 이것이 기사 성북구, 웅벽의 변신 ‘도자 벽화 갤러리’ 탄생***에서 언급된 성북동 비둘기인지 날아다니는 새 그림 도자 타일의 새가 성북동 비둘기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잘 모르겠다. 도자 벽화인 만큼 2018년 말의 색채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자 타일 주변 벽은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다.

2009년 9월 20일의 기사에 따르면 성북문화원 앞 4차선 도로 양편에 벽화가 조성되었는데 성북문화원 앞 건너편에서는 벽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2009년의 벽화는 도로의 양쪽을 더해 길이가 41미터이고 성북문화원 앞 벽이 너비 30미터에 이른다고 하니 11미터 정도의 벽화가 사라진 것이다. 보고자 본인이 못 찾은 것일까? 서울연극창작센터가 개관을 준비하며 사라진 것이라 추측해본다.

이어서 올해 조성된 월곡1동 오패산로15길 벽화를 보러 갔는데 찾을 수 없었다. 보고자 본인이 못 찾은 것인지 오패산로15길이 아니라 다른 오패산로였는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하였다. 기사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벼락이 채워지며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벽화는 못 찾았지만 골목이 깔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좁은 골목인데도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없어서 거닐기 편하다고 느꼈다. 다만 그것이 벽화 때문인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구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내용이 담긴 성북구청장의 경고 표지판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오패산로1가길 주택과 상가의 벽에서는 박승희 작가님이 그렸다는 벽화를 볼 수 있었다. 벽화가 그려진 상가로는 의류부자재전문업체 한솔정밀, 가나종합설비, 수지 예폭시 전문 광

*** 김민수, “성북구, 웅벽의 변신 ‘도자 벽화 갤러리’ 탄생”, 시사 매거진, 2018.12.28.



오패산로15길 벽 벽화가 없다.



오패산로1가길 월곡에 살아요

일수지, 무지개 코팅이 있었다. 오가며 벽화를 보는 사람들은 ‘월곡에 살아요’ 문구 벽화를 통해 오패산로1가길 벽화가 2022년 11월 23일에 월곡1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지 특징

성북문화원 앞 벽화

도자 타일을 사용한 벽화라는 특징이 있다. 새 모양의 도자가 그 아래의 도자 벽화들이 연결된 느낌을 조성 해주는 듯하다. 벽화를 통해 이쾌대, 권진규, 박경리, 이육사, 박완서가 성북구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우장과 승무를 통해 만해 한용운 또한 성북구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북구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월곡1동 오패산로15길

성북구청 지역경제과가 표기된 반려견 배설물 수거 철저 안내문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보려고 했던 벽화는 볼 수 없었으나 타일 벽을 볼 수 있었다.



오패산로15길 벽 벽화가 없는 타일 벽

오패산로1가길 벽화

화사한 색감의 벽화들을 볼 수 있었다. 벽화는 주로 꽃과 나비, 새로 이뤄져 있었다. 식물
을 동물과 곤충과 함께 그려 생동감이 느껴진다. 주변 시설과 건물 용도에 따른 벽화 디자인
을 볼 수 있었다. 배관과 호스를 일부러 피하거나 가리지 않고 오히려 활용한 디자인이 돋보
인다. 창문이 있는 곳은 창틀과 창문을 그려 넣는다. 튀어나온 벽은 꽃이 담긴 양동이와 물뿌
리개, 과일나무 화분을 둘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의류부자재전문업체 벽에는 옷핀과 단추를,
업소 주방 지하 옥상 방수와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의 일을 하는 설비업체 벽에는 롤러와 렌치
를, 수지 에폭시 전문점의 벽에는 단추와 배지, 메달을, 페인트 냄새가 콧속을 파고드는 상가
벽에는 물감을 그려 넣은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오패산로1가길 벽화

정봉운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장위동 주변 주택가〉와 〈한예중 주변 주택가〉를 통해 지역을 크게 돌아보며 사람이 사는 풍경에 주목했다. 많은 양의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 지역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기록했다.

활동목록

〈한예중 주변 주택가〉, 〈장위동 주변 주택가〉, 〈제1회 석계낭만축제〉, 〈제10회 장위부마축제〉, 〈어색한축제 2024〉, 〈제7회 월곡꿈그림도서관 청소년축제〉, 〈100회 정릉 개울장〉, 〈달빛마루도서관 달빛아카이브 전시〉, 〈나다아트앤뮤직페스티벌〉, 〈문화공간이육사 개원 5주년 기획전 '화답'〉



한예중 주변 주택가



장위동 주변 주택가

일시: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13:00-16:00

장소: 장위로, 돌곶이, 한천로, 장월로 일대 주택가



지난번 석관동 기록에 이어 이번 기록은 장위2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위3동, 장위1동까지 포함하려고 한다. 원래 장위동은 웃말, 아래말, 명덕굴, 간대마을, 활랑리 등 5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웃말은 이 지역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윗마을이란 뜻이었고, 아랫말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간대마을(간대말)은 이 지역의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고, 활랑리는 한랑리의 외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때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활랑리 향우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이름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을 하기에 앞서 지도를 펼쳐보니 다양한 도로망이 꽤 복잡하게 이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간선도로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택지를 먼저 건설한 후 간선도로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주택난 해소라는 목적하에 도로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건설되었고, 주택의 형태도 시기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추며 변천해 왔기 때문에 나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위1동은 북서울 꿈의 숲의 건너편에서도 서쪽에 위치하는데, 지대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도로가 있을 정도로 빌라촌이 다닥다닥 형성되어 있던 곳이다.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 해제되었으나, 장곡초등학교와 돌곶이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재개발7구역은 해제를 면하여 현대산업개발 꿈의숲아이파크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재개발이 해제되었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한다. 장위2동은 장위동의 중앙과 남쪽 지역을 차지하며 화랑로의 북측에 위치한다. 한편 장위1동의 아래쪽은 가파른 고지대이지만, 돌곶이로 양 옆 지역은 비교적 평지에 속한다. 특히 중앙의 둥그런 지역인 8구역과 9구역은 평지이면서도 매우 낙후된 빌라촌이라서 재개발이 유력시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재개발이 해제되었다.

반면 장위2동 주민센터 바로 윗 지역으로 재개발 10구역은 재개발이 추진되어 대우건설 푸르지오아파트(총 1,503세대)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재개발이 다 해제되었다. 장위동 대부분 지역이 지하철 사각지대로 교통이 불편한 반면, 장위2동 남쪽 지역은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도 평평한 편이다. 장위3동은 장위동의



장위 탑 부동산 건물



함바 식당과 상가 건물

북동쪽 지역을 차지하며, 장위동과 월계동을 남북으로 가르는 우이천의 서쪽 천변에 위치하며 노원구 월계동 및 광운대와 가까워 성북구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곳이다. 장위동이 전반적으로 고지대인 반면에 장위3동은 거의 전부 평지에 속하는 지역이다. 장위1, 2동과 달리 대부분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북서울꿈의숲 동문 앞의 재개발 2구역에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총 513세대)가 2017년 11월 완공 및 입주완료 되었고, 광운초교앞사거리 서쪽의 5구역은 삼성래미안퍼스트하이하아파트(총 1,562세대)가 착공되어 2019년 9월경 완공되었다.

장위동은 꾸준한 도시 주거 변천을 거쳐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주요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현재 장위동의 주요 간선도로는 장위로, 장월로, 돌곶이길 (장석로), 한천로 등이 있다. 이 중 장위로와 장월로의 일부 구간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길이었으나, 장위동을 대각선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된 것은 1970~1980년대의 일이고 장위동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된 것은 1979년의 일이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망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주택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지하철 돌곶이역 2번 출구로 나와 가장 큰길로 보이는 돌곶이로를 쭉 따라 올라갔다. 양쪽으로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고 주택이 쪽으로 향했는데 5분 정도 걸다가 사거리가 나왔다. 장위2동점 GS25가 눈에 들어온 이유는 GS25 건물 이층에 벽돌로 된 오래된 건물이 눈에 확 띄었기 때문이다. 기와지붕으로 된 벽돌 이층집은 오래된 벽돌과 철 지난 창문 구조로 되어있었고 그 골목을 따라 철거 중인 건물들이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어 지나칠 수가 없었다. GS25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니 벽돌로 된 상가 건물들이 있었다. 음식점, 찻집, 공업사, 양복점, 슈퍼들이 나지막한 어깨로 서로 붙어있어 사람 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철거 중인 건물들 사이로 운영 중인 상점들

해주었다. 철거 중인 것 같은데 몇몇 상점들은 아직도 운영 중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좀 더 오래되어 보이는 전기공사, 제일양복점도 구술 해보고 싶었다. 안쪽 골목으로 주욱 접어드니 본격적으로 철거 중인 건물들이 더 많아졌다. 건축 시공 때면 함께 따라오는 식당인 함바식당도 보였다. 안쪽으로 더 접어드니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어서 동방인력공간과 소규모 패턴 공장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에는 다세대 주택들도 많이 보였고 대부분 철거 중인 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장위로45가길을 지나 돌곶이로32길로 돌아 들어가니 안쪽 중앙에는 오래된 향우회 건물이 보였는데 문이 닫혀있어 인터뷰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안쪽으로 쭉욱 따라 들어가니 주택가 건물 사이로 우리은행 직원 합숙소도 보였고 고택이 한눈에 들어왔다.

장위동 김진흥 가옥이었다. 이 가옥은 서울시 민속문화유산 제25호로 지정이 되어있었고 1865년(고종 2년)에 지어진 곳이다. 이 집은 순조의 셋째 딸 덕은공주의 남편인 부마 윤의선과 그의 양자인 윤용구가 살던 곳이라고 한다. 윤용구는 1871년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병조판서를 지냈지만 을미사변(1895년) 이후 관직을 거부하고, 이곳에 은거하였다. 이후 1998년 12월 말에는 소유주였던 김진흥이 이 집을 불교재단에 기증한 이후 '진흥선원'이라는 절이 되었다고 한다. 이 집의 사랑채 대청에 보관되어 있던 상량문에 을축년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남향한 넓은 터에는 ㄷ자형 중문간 행랑채와 ㄷ자형 안채, ㄱ자형 사랑채, ㄷ자형 별채가 놓여있었고, 안채의 왼쪽에는 일자형 별당채가 안방을 마주하고 있었다. 안채는 세 칸 대청 앞으로 다섯 칸씩 날개가 붙어있어 다른 집에 비하여 안마당이 깊었던 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당 가운데는 우물이 있었다. 마당은 중문 행랑채가



김진홍 가옥

옆으로 길게 붙어 L자 형으로 되었는데 마당 크기가 중문 칸으로부터 7칸이나 되어 넓고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현재 안채 대청은 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래의 모습은 안방 쪽이 뒷방, 안방 두 칸, 부엌 두 칸, 칸 반의 찬방이 있었다고 한다. 건넌방 쪽은 건넌방 두 칸, 부엌, 마루, 방, 사랑채 곁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다. 대청도 원래는 한 칸 깊이의 대청과 반 칸 규모의 퇴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모두 터서 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안방 서쪽 반 칸도



신품방앗간

벽장이나 툇마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옛 안별당 건물 안방 사이를 터서 방으로 만들고 지장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이후 모두 툇마루 끝에 미서기 문을 설치하였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이후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후에도 조금씩 변경은 있었으나 큰 변화는 없다가 기증 이후 사찰로 개조되면서 많이 변형되어 원래 모습에서 많이 잃어버렸다고 한다. 원형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전체 집 구조나 배치는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옛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장월로28길에서 38길로 접어드니 크고 작은 빌라 건물과 작은 공장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오래된 방앗간 건물도 보였다. 장위3동 어린이집으로 꺾어 들어왔더니 어느새 돌곶이로32길로 접어들었다. 철거로 인해 부분적으로 폐허가 되어가는 공간들이 조금씩 다시 보이고 봉제 공장에서 쓰던 수원 단추구멍집, 강경젓갈집, 종합설비들의 상가건물들도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갑자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하여 빠른 걸음으로 대로변으로 들어서니 한천로99길로 접어들었다. 대로변을 따라 오래된 양옥집들이 짙게 펼쳐져있고 자가를 이용한 상가 건물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장위1동까지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호우로 인한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서야 했다.



골목의 다양한 상점들



자가를 이용한 상가 건물들

신수미

2024년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

〈2024 제8회 성북문화바캉스〉와 〈예향재〉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을 구석구석 조사하는 동시에,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까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 다녀오지 않아도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생생하게 기록했다.

활동목록

〈예향재〉, 〈2024 제8회 성북문화바캉스〉, 〈개운생태체험관〉, 〈보문사와 함께하는 칠월칠석 별별잔치〉



예향재

2024 제8회 성북문화바캉스

일시: 2024년 8월 4일 일요일 12:00-14:30

장소: 우이천다목적광장 (석관동 376)



2024년 성북문화바캉스는 서울 성북구에서 열리는 여름철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7월 26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화요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었으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성북초등학교에서, 8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우이천 다목적광장과 길음1동 7단지 앞 공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이천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물놀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우이천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물놀이는 8월 2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화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수



성북문화바캉스 전경 중형 풀장이 설치된 모습이다.



성북문화바캉스 전경과 입구

영장과 성인들을 위한 큰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적합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초대형 슬라이드와 소형 슬라이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 항상 긴 대기줄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몰렸습니다. 슬라이드를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부모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안전은 물놀이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물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배치된 안전 요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안전 요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이러한 안전 조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그늘막과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특히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 그늘막 아래에서 쉬거나 벤치에 앉아 간식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족들은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먹기도 했으며, 현장에서 운영 중인 매점이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사 먹으며 한층 더 풍성한 여름날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 물놀이는 성북구민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었고, 타지역 주민들에게는 1인당 2,000원의 입장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입장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료입장이 가능한 성북구민에게는 “2024 제8회 성북문화바캉스” 문구가 적힌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팔찌는 물놀이장



성북문화바캉스로 가는 길

내부에서 재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축제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즐겼으며, 특히 주말 동안에는 물놀이장을 방문하는 인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찾은 젊은 층도 많았으며, 이들은 시원한 물속에서 여름의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무대에서는 DJ가 나와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른들 역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여름날의 흥을 만끽했습니다. DJ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물놀이장은 마치 여름 축제의 중심지가 된 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2024 성북문화바캉스의 물놀이는 단순한 여름철 물놀이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여름휴가를 제공했습니다. 물놀이장을 찾은 사람들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물놀이장을 자주 찾았는데, 아이들이 무더위를 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이런 물놀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성북구의 여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우이천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물놀이는 2024 성북문화바캉스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많은 사람에게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 행사는 성북구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성북구의 여름 축제를 한층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물놀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바캉스가 더 발전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성북구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 해주길 기대합니다.

기록의 순간들

2024년 3월,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두 달간 좋은 촬영을 위한 강의부터 성북구의 역사, 구술사 연구를 위한 강의와 실습을 거쳐 성북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6월,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총 20명의 주민기록단은 본격적으로 성북구의 구석구석을 조사하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중에도 매달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누며 더 나은 기록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있었던 열정의 시간을 함께 만나보세요.













우리가 기록하는 성북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저는 현재 성북문화원에서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기록단 교육을 처음 맡은 것이 2020년이니까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많은 분들이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강생의 다수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주민들이었지만 간혹 대학생 등 젊은 분들도 있었고, 성북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이고 또 구술사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민기록단 교육 내용 역시 서울과 성북의 역사, 그리고 구술사 방법론과 실제 인터뷰 사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간행한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는 성북문화원에서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고 현재 주민기록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성북에 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총 20명의 주민기록단 단원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주민기록단 단원별로 그동안 생산한 기록 건수에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기록을 하나의 책에 담기 어려워 단원 1명당 1건의 기록을 선별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실린 주민기록단 20명의 기록을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북구 내 여러 ‘길’이나 ‘동네’에 대한 기록이 총 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북동 길의 나무, 성북천 산책로, 성북문화원 및 오패산로1가 길의 벽화, 북악스카이웨이, 길음 5 재정비 촉진 구역 정릉로31길 한옥군, 하월곡동 재개발지구 주택가(신월곡 1구역), 장위동 주변 주택가, 성북천변 주상복합 건물과 가게들 등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행사’나 ‘사업’에 대한 기록이 총 4건 있습니다. 국제꽃장식대회, 성북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성북문화비캉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열린 아파트 등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북구 내 주요 ‘시설’에 대한 기록도 성북근현대문학관, 우리옛돌박물관,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 등 3건이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 존재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369사랑방, 보문동주민자치회, 알록달록 바느질하

는 이주여성들 등 3건 있으며, 끝으로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희자, 이순진)에 대한 기록이 2건 있습니다.

20건 기록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별 분류를 통해 현재 이 책은 물론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길’이나 ‘동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것은 자연스럽고 또 주민기록단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은 글자 그대로 성북구 주민이 직접 우리의 지역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일상 공간인 성북구 내 길이나 동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 내에 있는 수많은 길과 동네 중에서 어디를 기록할 것인가는 개별 주민기록단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8건의 기록만 봐도 길이나 동네에서 주목하는 세부 대상은 ‘나무’ ‘벽화’ ‘건물’ ‘한옥’ ‘산책’ 등 다양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 발굴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 재개발은 곧 기존 것들의 소멸을 의미하는 만큼 소멸되기 전에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내 여러 ‘행사’나 ‘사업’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성북구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나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어울림과 문화생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어떤 행사나 사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 내 행사나 사업에 대한 주민기록단의 기록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북구 내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문학관, 박물관, 기념관 등 지역의 인물, 역사, 장소성을 드러내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기록단을 통해 성북구 내 여러 시설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 사이에 공유된다면 성북구민들의 지역 정체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북구 내 ‘인물’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웠습니

다. 주민기록단 활동에서 핵심은 결국 ‘주민’, 즉 사람입니다. 주민기록단 교육에서 구술사 방법론과 실제 인터뷰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1명이라면 특정 인물에 대한 생애사 구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역시 구술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고 접촉해서 구술인터뷰까지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에서 인물과 공동체의 비중이 낮은 것도 아쉽지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3건의 공동체 기록과 2건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록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앞으로 주민기록단 활동에서 그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을 진행한 사람으로서 그 교육의 성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책이 분량의 한계로 주민기록단원 1명당 1건의 기록만 제대로 소개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이트의 ‘주민기록단’란에 다른 기록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북구 주민기록단이 왕성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 성북의 어제와 오늘을 풍성하게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밝은 성북의 내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

성북, 우리가 듣고 본 이야기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영일

기획 강성봉

집필 **성북구 주민기록단** 김지성·남명희·노재훈·박경석·선종욱·신수미·신수민·신해영·양혜선
오두석·유지예·윤서영·윤소영·이가현·이동미·장보혜·정봉운·정유란·조은영·채혜정

편집 박유진

디자인 권이지·이정아

펴낸곳 학연문화사

성북문화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비매품

© 2024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